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길웅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W.G. 제발트의 『이민자들』에
나타난 기억과 공간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최수연

W.G. 제발트의 『이민자들』에
나타난 기억과 공간

김길웅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최수연

인 준 서

최수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W.G. 제발트는 1944년 독일 남부 알고이지방의 소도시 베르타크Wertach에서 태어났다. 작가는 2001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독문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영국으로 이주해간 이민자였다.¹⁾ 제발트의 이민자로서의 삶은 1965년 21세의 나이로 스위스 프리부르에서 학업을 마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청소년기에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알게 되고 파괴의 역사 앞에서 고통 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나중에 태어난 자로서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거움 die unerträgliche Schwere der späten Geburt” (R. Görner)과 죄의식을 느껴 결국 자발적 망명을 선택하게 된다.²⁾

본 논문은 W. G. 제발트의 작품 『이민자들』에서 등장인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는 ‘기억’과 그들을 둘러싼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950년을 전후로 유럽의 국가들은 수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 2차세계대전의 전운 속에서 위험을 감지한 유대계 독일인들은 가까운 유럽 국가들로의 이주를 선택한다. 전쟁에서 독일이 패배한 후 다시 독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다수였으며, 그들은 이주해 간 나라에서 정착을 시도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았다.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창출해냈고, 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들은 모종의 희망을 안고 산업국가로 이주한다.

이민자들이 이민 후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다. W. G. 제발트의 작품 『이민자들』의 주인공들도 이주 후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민자들』에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은 내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은 소설 속 과거의 기억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문제를 낳는다.

W. G. 제발트 작품의 멜랑콜리한 분위기는 작가가 이민자들의 삶을 조망하는 방식과 그들이 이주를 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표시이다.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극적 사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타지를 떠돈다. 그러한 이민자들

1) 김응준: 인류문명의 몰락에 관한 보고서,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 32집, 2009. 94-120쪽.

2) 구연정: 은유로서의 현기증과 제발트의 기억 시학, 카프카 연구 제 25집, 2011. 91-109쪽.

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기억들인데, 젊은 시절 잊고 있던 그 기억들은 노년의 고요한 삶에 파고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진다. 『이민자들』의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고통을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한다. 이주민들은 끊임없는 자극, 즉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무력해진 상태이며, 현실적으로 적응하거나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나갈 시도를 하지 못한다.

그들이 돌파구로 택한 것은 죽음이다. 작품의 인물들에게 죽음은 해방을 의미한다. 죽음은 비루한 현실로부터의 해방이며 과거의 기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등장인물들의 곁에는 그들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망자의 생전에 최소한의 접촉만을 하고 살아오던 주변인은 그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여 죽음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때 그들이 이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망자의 ‘기억’과 그들을 둘러싼 ‘공간’이다.

목 차

논문개요

목차

I. 서론	1
II. 『이민자들』에 나타난 기억	4
2.1 「헨리 쉐윈 박사: 기억은 최후의 것마저 파괴하지 않는다」	4
2.2 「파울 베라이터: 어떤 눈으로도 헤칠 수 없는 안개무리가 있다」 ..	10
2.3 「암브로스 아델바르트: 내 밀밭은 눈물의 수확이었을 뿐이다」 ..	18
2.4 「막스 아우라흐: 날이 어두워지면 그들이 와서 삶을 찾는다」 ..	25
III. 『이민자들』에 나타나는 공간	32
3.1 헨리 쉐윈 박사: 저항의 공간	32
3.2 암브로아델바르트: 해방의 공간	37
3.2.1 공간의 기능	37
3.2.2 정신병원	39
3.3. 막스 아우라흐: 폐허가 된 도시 속의 공간	42
IV. 결론	48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I. 서론

W.G. 제발트의 소설 『이민자들』은 네 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단편들은 한 명의 추적자가 다른 사람의 행적을 뒤쫓는 방식을 취한다. 추적당하는 네 명은 각 단편의 핵심인물로, 각기 다른 이유로 고향을 떠난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이주해 온 국가에서 여러 문제점을 갖고 살고 있다. 네 단편의 주인공들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각기 다르다. 첫 번째 단편의 헨리 쉘윈 박사는 리투아니아 인으로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 영국에 정착해 그 곳에서 노년까지 생을 보내게 된다. 두 번째 단편의 파울 베라이터의 아버지는 반(半)유대인으로서 자신은 4분의 3만이 ‘아리아인’이다. 그는 이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박해를 피해 프랑스로 떠났다가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독일로 돌아온다. 세 번째 단편 암브로스 아멜바르트는 미국으로 이주한 독일인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난다. 네 번째 이야기의 막스 아우라흐는 2차세계대전 당시 홀로 영국으로 이주해서 맨체스터에 정착하게 된다. 앞에 열거한 네 명의 인물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외롭고 고독하게 생을 보낸다.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으로 인해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과거의 기억은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눈여겨볼 점은 그들을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이 끔찍한 기억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첫 번째 단편의 경우가 그러하다. 행복했던 과거의 시간들은 현재의 비루한 삶을 더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바꾸어 말한다면, 현재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은 현재의 ‘나’를 과거의 영광의 시간 속으로 숨게 만든다.

끔찍한 체험의 기억은 과거의 체험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거나, 그 체험과 관련이 있는 물건을 볼 때 재생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떠오른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을 또 다시 느끼게 된다. 현재는 과거의 기억을 불러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고, 끔찍한 기억은 현재를 괴로운 것으로 만든다. 두 번째 단편인 파울 베라이터와 네 번째 단편인 막스 페르버는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현재의 삶이 파괴되는 경우에 속한다.

행복한 체험의 기억은 현재의 삶이 과거의 기억보다 행복하지 않을 경우 현재를 더 비참하게 느끼게 만들고, 과거의 기억을 더 자주 떠올리며 결국 과거기억으로 침잠하게 만든다.

기억은 그 성질과 관계없이 현재로 소급되며, 이것은 현재의 삶의 질과 무관하지

않다.

『이민자들』의 네 인물의 기억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네 인물이 거주하는 공간은 그들의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그들의 절박하고 외로운 심정이 드러나는 장소이거나 그들의 안식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간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그 곳을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간의 창조와 구획은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 공간은 누군가의 필요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지지만, 때로 거주민의 내면상태가 무의식중에 투영되기도 한다. 공간과 주변부의 상호적인 관계는 다양한 종류의 공간들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더운 나라와 추운 나라의 주거지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통풍이 잘되게 하려는 목적과 바람과 한기를 막기 위해서라는 목적에 따라 공간은 상이하게 만들어진다. 또한 공간은 물리적인 목적 이외의 사항을 반영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16세기 유럽에선 집이 커서 공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한 공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했다.³⁾ 이는 공동체 개념이 사생활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16세기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가 그들의 공간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간 연구는 거주자의 내면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 더 나아가서는 한 세대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누군가 머무는 공간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살펴보거나, 그 공간속의 사물들이 어떠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듯 공간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현재 유럽의 주거지는 과거의 공간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집안에 복도가 생기고 방들이 나뉘어 배치되어 있으며 공간에 더 여유가 있는 경우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은 사생활의 개념이 보다 확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점이 공간을 구획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자들』의 네 인물은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민자들은 서류상으로는 이민 온 나라에 속하지만, 그들을 새로운 나라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 고향에서의 직업이나 개인적 능력이 이주해 온 나라에서 전혀 효력을 발

3)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2, 278쪽 참조.

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과 무관하게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내부요인이나 외부요인 모두가 정착과 적응을 힘들게 한다. 이러한 경우 이민자들은 어디에 속한 것이며, 그들이 어느 곳에서 정체성을 찾고 자아를 확립해가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호미 바바에 따르면 “주체의 위치에 대한 인식은 근대세계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사이에 낀 (in-between)공간들은 자아성-단수적이던 공동적이든 - 을 고찰하는 전략을 위한 영역을 제공하는데, 그 전략은 사회사상 자체를 정의하는 행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기호들과 혁신적인 협동 및 경쟁의 위치들을 창시한다. ‘민족성’이나 공동체적 이해, 문화적 가치라는 상호 주관적이고 집단적인 경험이 교섭되는 것은(negotiated) 틈새들(interstices) - 차이의 영역들의 중첩과 치환-이 발생하는 곳이다. 부분들(일반적으로 인종/계급/성 등의 억양을 지닌)의 합계를 넘어서서, 혹은 그 ‘사이에 낀 위치’에서, 주체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⁴⁾

위와 같은 호미 바바의 언급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이 공간’이라는 개념이다. 『이민자들』에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은 모두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이민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자신이 떠나온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 사이에 놓여 있는 입장이다. 이주민들이 새로 도착한 국가에 문제없이 정착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정체성은 과거에 떠나온 국가에서 형성된 것이며, 그곳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포함한 다양한 차이점은 이민자들로 하여금, 현재 속해 있는 곳에 결속감을 갖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사이 공간’은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 부유하는 자들의 공간이다. 이 개념은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다. 떠나온 고향에 더 이상 속해있지 않지만, 이주해 온 공간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은 어느 곳에서도 정신적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며 공간과 공간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이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혹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공간’과 ‘공간’사이에 또 다른 공간을 창조한다.

4)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02, 28쪽.

II. 『이민자들』에 나타나는 기억

기억은 과거의 산물인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현재는 과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가에 따라 암시받을 수 있다. 즉, 과거의 기억이 어떻게 떠오르느냐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유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억은 무의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의도와 상관없이 기억은 문득문득 떠오른다.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기억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억의 무의지적인, 자의적인 특성은 때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억의 자의적, 주관적인 특성은 초현실주의적 예술의 창조를 가능하게 했으며, 독일의 사상가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은 기억을 역사서술에 적용하여 19세기 파리 아케이드에 대해 서술하기도 했다. 그는 기억이 문화연구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프루스트는 자신의 작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기억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한 바 있다. 이 작품에서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는 매개체는 홍차에 적신 마들렌이었고, 그것은 주인공이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유년시절의 기억을 한 순간에 현재로 불러온다.

제발트의 작품 『이민자들』에서도 기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작품 속의 단편에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들은 모두 특정한 기억으로 인해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 때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는 그들이 처해있는 현재이다. 네 명의 인물의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기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기억의 자의성과 주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1 「헨리 켈윈 박사: 기억은 최후의 것을 파괴하지 않는가」

첫 번째 단편은 헨리 켈윈 Henry Selywn 박사의 집에 세든 스위스 출신의 한 부부의 진술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일자리를 따라 이곳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켈윈 박사의 삶은 외견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넓고 관리가 잘 되어 있진 않지만 정원에 별채가 딸린 집에 살고 있고, 젊은 시절의 무절제한 삶

으로 인해 현재는 재산을 거의 탕진한 상태이지만 사업수완이 좋은 부인을 둔 탓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부릴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어딘가 다른 곳에 속해 있다. 그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집안이 아닌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그마한 별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일도 많다. 다른 사람들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는 그가 어느 날 세입자부부에게 자신의 친구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했으니,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 이 저녁 모임에서 세입자 부부는 쉘윈 박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된다. 식사가 진행되던 중 쉘윈 박사의 지인 중 한 명이 스위스 이야기를 꺼내자 처음에는 이야기하기를 망설이던 쉘윈 박사는 일차세계대전 직전 스위스 베른에서 보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쉘윈 박사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의학 기초과정을 수료한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스위스 베른으로 갔지만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대부분의 시간을 베른 지방의 알프스 고지에서 보내며 등산에 몰두했다. 그때 쉘윈 박사는 당시 예순다섯의 등산안내인 요하네스 네겔리 Johannes Negli를 만났고, 처음부터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둘은 함께 스위스의 여러 산들을 등반했고, 쉘윈 박사는 네겔리와 함께 보낸 그 시간만큼 편안했던 적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때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전쟁이 발발하고, 쉘윈 박사는 징집되어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와야 했는데 요하네스 네겔리와 작별하는 일은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징집 후 병영에서 처음 받은 편지들 중 한통에서 네겔리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네겔리가 사고를 당해 실종되었고, 빙하의 크레바스에 빠져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었다. 쉘윈 박사는 이 소식을 접한 뒤 심한 우울증에 빠져 의병 제대를 할 뻔했다고 말한다. 쉘윈 박사는 이야기 도중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크리스마스기간에 베른에서 알게 되어 전쟁이 끝난 후 결혼을 하게 된 헤디와 헤어지는 것 자체도 나겔리와 헤어지던 고통과 비슷하지 않았습시다. 아직도 마이링엔역에 서서 손을 흔드는 나겔리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쉘윈 박사는 나지막하게 이런 기억은 그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혼자서 말했다. 왜냐하면 헤디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낡아져지만, 항상 네겔리는 떠올릴 때마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네겔리와는 사실상 마이링엔에서 이별한 뒤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본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Selbst die Trennung von Hedi, die ich in Bern kennengelernt hatte um die Weihnachtszeit und die ich dann nach dem Krieg geheiratet habe, hat mir nicht annähernd denselben Schmerz bereitet wie die Trennung von Naegeli, den ich noch immer auf dem Bahnhof von Meiringen stehen und winken sehe. Aber vielleicht bilde ich mir das nur ein, sagte Dr. Selwyn etwas leiser für sich, weil mir die Hedi die Jahre über in zunehmendem Maße fremd geworden ist, während mir Naegeli, jedesmal, wenn er auftaucht in meinen Gedanken, vertrauter geworden scheint, obschon ich ihn in Wirklichkeit seit jenem Abschied in Meiringen nicht ein einziges Mal mehr gesehen habe.⁵⁾

쉴윈 박사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과거의 기억을 언급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쉴윈 박사가 언급하는 과거의 기억 속에는 현재의 그의 고뇌가 담겨 있다. 위의 고백은 쉴윈 박사가 네겔리에게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네겔리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을 지금은 사이가 소원해진 자신의 부인과 연관시키며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겔리에 관한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삶속에 포함되어 삶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기억은 쉴윈 박사의 현재 생활과 부딪히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상황을 더 뚜렷이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쉴윈 박사는 과거의 행복한 체험으로 인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쉴윈 박사가 젊은 시절에 체험한 환희를 상실함으로써 야기되는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자신에게 남아 있는 시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네겔리와 헤어지던 당시 이십대였고,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의사 지망생이라는 신분은 그에게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줄 것이고, 네겔리와 같은 친구를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네겔리와 나눴던 우정을 배우자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노년이 된 그에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고독과 그리움이다. 젊은 시절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남아 있

5) W. G. Sebald: Die Ausgewanderten, vier lange Erzählungen,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2002. hier: S. 24. [이하 Werk로 표기]

는 시간에 대한 기대로 인한 것이었으나, 이미 노년에 이른 켈원 박사는 더 이상 자신의 앞에 남은 것들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켈원 박사가 택한 것은 과거에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 즉 네겔리와 우정을 나눴던 그 시절의 기억으로 켈원 박사는 끊임없이 돌아간다. 하지만 네겔리와 친밀감을 회상함으로써 현재 그의 부인인 헤디와의 거리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켈원 박사가 과거의 감미로움을 떠올릴수록 현재의 고통은 더 실감나고, 현재의 고통을 잊는 방편으로 그는 다시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한다.

그는 지난 수 십년 동안 마을을 떠나던 장면들이 기억에서 사라졌는데 최근에 그날의 장면들이 다시 떠오른다고 말했다.

Jahrzehntelang seien die Bilder von diesem Auszug aus seinem Gedächtnis verschwunden gewesen, aber in letzter Zeit, sagte er, melden sie sich wieder und kommen zurück.⁶⁾

켈원 박사는 일곱 살이 되던 해에 고향인 리투아니아를 떠나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려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탔던 배는 영국에 도착했고, 그의 가족들은 영국에 정착하게 된다. 이 우연적인 사고가 현재 켈원 박사가 영국에 살게 된 이유이다. 켈원 박사의 가족은 정착 생활 초기에 지하 셋집에 살기도 했지만 켈원 박사는 우등생이었고, 그의 기억에 의하면 가족들은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지는 않았다. 켈원 박사는 영어를 빨리 습득했고, 졸업시험에서 전교 일등을 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한 후 개인병원을 운영했으며 부유한 부인과 결혼해서 한때는 사치스런 생활을 하기도 했다. 결국 켈원 박사는 이민자로서 은퇴하기 전까지 성공적인 삶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기억의 운동은 산발적이고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 기억의 수면위에 떠오르지 않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일에는 자극이 필요하다. 켈원 박사에게 떠오르는 과거의 이미지, 잊은 줄 알았던 기억이 떠오르게 된 자극제는 현재의 처지이다. 켈원 박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통감하는 순간, 상실의 감정은 과거의 기억을 순식간에 현재로 불러온다.

켈원 박사는 과거의 사치스런 생활로 인해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

6) Werk, S. 31.

고 있다. 그의 삶을 되짚어 볼 때 켈윈 박사가 현재를 비판하며 비교적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고자 한다면 그 기억은 유망한 직종에 종사하며 부유한 상인의 딸과 결혼하여 부유한 생활을 했던 시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올리는 기억들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들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세속적인 영광에 켈윈 박사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에게 정말로 행복했던 시기는 그 이전, 유년기에 해당한다.

두 해 동안 다녔던 헤더학교의 유년반 선생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던 기억도 난다고 그가 말했다.

Ich sehe, sagte er, wie mir der Kinderlehrer im Cheder, den ich zwei Jahre schon besucht hatte, die Hand auf den Scheitel legt.⁷⁾

그가 추억하는 시절에는 위의 경우처럼 그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등장한다.

나는 화이트체플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마치 꿈처럼, 말하자면 하룻밤 사이에 영어를 배웠어요. 젊고 아름다운 여 선생님 리사 오웬을 사랑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Ich besuchte eine Grundschule in Whitechapel und lernte dort wie im Traum, sozusagen über Nacht, das Englische, weil ich meiner wunderschönen jungen Lehrerin, Lisa Owen, vor Liebe jedes Wort von den Lippen ablas[...]⁸⁾

지금의 ‘나’는 과거의 기억들의 총체물이다. 경험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들은 기억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억의 운동은 산발적이며 인간의 머릿속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기억들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의 공간에 저장할 수 없다. 망각은 새로운 기억을 위한 장소를 만드는 역할을 하며, 끄적한 기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망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은 기억은 그 기억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랜 기간 수면 위로

7) Werk, S. 31.

8) Werk, S. 32.

떠오르지 않았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현재의 고뇌와 관련이 있다 . 영국의 시인 워즈워스는 “미래의 회복을 위해 과거의 영혼을 간직할지니”라고 적은 바 있다.⁹⁾ 켈원 박사가 회복을 위해 떠올리는 과거의 기억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반영한다. 끊임없이 떠올리는, 혹은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기억들은 켈원 박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 과거의 기억들은 켈원 박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가깝다. 그가 되풀이해서 떠올리는 이 기억들은 켈원 박사가 추구하는 것이 친밀감과 인간적인 따뜻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감정들을 네겔리와는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켈원 박사는 세입자 부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중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뒤의 수십 년간은 내게 맹목적이고 기분 나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1960년 내 병원과 환자들을 포기해야만 했을 때 나는 소위 현실세계와의 마지막 접촉을 끊어버렸습니다.

Die Jahre des zweiten Kriegs und die nachfolgenden Jahrzehnte waren für mich eine blinde und böse Zeit, über die ich, selbst wenn ich wollte, nichts zu erzählen vermöchte. Als ich 1960 meine Praxis und meine Patienten aufgeben mußte, löste ich meine letzten Kontakte mit der sogenannten wirklichen Welt.¹⁰⁾

켈원 박사는 어린 시절 친지나 선생님과 나눌 수 있었던 타산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과도 같은 친밀감을 성인이 된 후 네겔리를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에 휩쓸려 켈원 박사는 자신이 원하던 가치를 빼앗긴다. 켈원 박사가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네겔리는 사고를 당해 실종되어, 켈원 박사는 다시는 네겔리를 만날 수 없게 된다.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 켈원 박사는 자신이 원하는 친밀감을 다른 누구로부터도 얻을 수 없었다. 그는 새롭게 자신의 가족이 된 아내에게서도 그런 종류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다. 또다시 발발한 전쟁은 그가 징집되었던 시절, 네겔리의 실족사 소식을 듣던 때를 다

9) William Wordsworth: The Prelude, vol. 4, 1805, hier: 342-344행.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0, 18쪽에서 재인용.

10) Werk, S. 35.

시 환기하게 만들고, 이 두 번째 충격은 그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 결국 켈원 박사는 은퇴하고, 현실세계와의 접촉을 끊어버린다. 켈원 박사의 과거의 기억들은 이러한 자극에 의해 망령처럼 그를 끌어 내린다. 과거의 행복한 체험의 기억은 그에게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그를 현실에서 더 멀어지게 했고, 결국 켈원 박사는 현재 그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과거에는 가졌었다는 생각으로 인해 더 큰 상실감을 맛보게 된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뭔가를 팔아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한 가지,
즉 내 영혼을 파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Aber Ich habe es nie fertiggebracht, etwas zu verkaufen,
except perhaps, at one point, my soul.¹¹⁾

켈원 박사는 과거 사치스러운 생활의 잔여물인 자동차들을 아직 가지고 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지금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들을 팔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켈원 박사는 그것들을 팔아볼 결심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가 언급한 것처럼 그가 금전 감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켈원 박사는 과거의 기억의 힘을 빌려 현재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물건들을 처분할 수 없다. 켈원 박사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상실을 두고 영혼을 팔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네 겔리와 헤어진 일은 켈원 박사는 어느 정도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의 비극적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세입자 부부가 켈원 박사의 집을 떠난 후 몇 년 뒤에 켈원 박사는 자신의 별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2.2 「파울 베라이터: 어떤 눈으로도 헤칠 수 없는 안개무리가 있다」

파울 베라이터 Paul Bereyer는 독일의 한 마을인 S시의 초등학교 선생이었다. 1984년 1월, 파울 베라이터의 제자 중 한명은 S시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는다. 그 우편물은 파울 베라이터가 철로에 드러누워 있다가 열차에 깔려 사망했다는 내용이였다. 파울 베라이터의 제자는 S시의 사람들이 지역소식지에 실은 조사(弔

11) Werk, S. 34.

詞)를 읽게 된다. 조사는 우편물에 동봉되어 있었다. 그 조사에는 파울 베라이터의 공적만이 열거되어 있었다. 파울 베라이터가 자신의 의지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나 그가 죽기 전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3제국 시기에¹²⁾ 파울 베라이터가 교사직에서 해임된 적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파울 베라이터의 부고를 읽은 제자는 그의 죽음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조서가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다고 느낀다. 제자는 그 뒤 몇 년 동안 파울 베라이터를 종종 떠올린다. 결국 그는 파울 베라이터에 대해 간직하고 있던 개인적인 기억들을 떠올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모르는 베라이터의 이야기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파울 베라이터의 이야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문화적 기억과 개인의 기억이 대립한다는 점이다. 기억의 하위개념 중 하나인 문화적 기억은 어떠한 사건을 국가나 특정 집단이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알라이다 아스만에 의하면 문화적 기억은 망자 추모에 그 인간학적 본질이 있다.¹³⁾

S시가 파울 베라이터의 죽음을 추모하는 방식, 즉 지역 소식지에 파울 베라이터를 추모하는 조사를 올리는 행위는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방식에 속한다. 중요한 점은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파울 베라이터의 개인사가 무시된다는 것이다. 파울 베라이터를 기리기 위해 그의 업적만이 부각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파울 베라이터가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S시가 파울 베라이터에게 가했던 폭력과 관계가 있다.

문화적인 기억은 주로 매체를 통해 후대로 전승된다. 사건은 매체를 통해 어느 정도는 가공되어 역사가 되고, 그 방식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보관된다. 후세의

12) 제3제국(Drittes Reich):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시기의 독일제국(1934-1945)를 일컫는 용어로서 1933년 정권을 장악한 나치스 독일이 1934년 대통령 힌덴부르크의 사망을 계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체주의적 이념을 실현화하는 주도적 용어로서, 나치스가 제3제국의 완성을 제창한데서 비롯된 말이다.

13) 망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세에 전해 주는 것이 가족들의 책무처럼 받아들여졌다. 망자에 대한 기억은 종교적인 차원과 세속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경건함으로, 후자는 송덕(頌德)으로 각기 대변된다. 경건함은 후손의 의무, 즉 살아 있는 자들이 망자를 기리며 추모하려는 의식을 말한다. 경건함이란 다른 사람들, 즉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망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송덕, 즉 칭송으로 명성을 얻는 일이란 어느 정도까지는 망자가 살아 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송덕이란 자기의 이름을 영구화하기 위한 세속적 형식으로, 당사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최후의 심판일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애쓴 것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0, 39쪽 참조.

사람들은 증거로 남은 매체를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매체에 언급되지 않았던 개개인의 이야기는 문화적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몇몇 사람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기록되지 않은 사실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그대로 사라지고, 남겨진 기록만이 사실로 남는다.

파울 베라이터의 종적을 추적하는 그의 제자/추적자는 그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파울 베라이터가 어떤 선생님이었는지를 알고 있고, 그에 관한 추억을 갖고 있다. 추적자는 파울 베라이터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으로 인해 부고에 실린 내용에 의아함을 느낀다. 결국 추적자는 직접 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나아가서 파울 베라이터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수집하려 한다.

파울 베라이터의 제자/추적자는 학교를 졸업한 뒤로 가끔 들르곤 하던 S시로 간다. 도착하자마자 그가 알아낸 사실은 파울 베라이터가 자신의 집에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소유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S시에서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파울 베라이터는 동네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태도를 보였으며, 그런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한다. 파울 베라이터는 우수한 교사라는 평판을 가졌던 젊은 시절에도 별종으로 불리곤 했었다. 그래서 S시의 사람들은 파울 베라이터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것을 숙명처럼 여겼다.

추적자는 초등학교 시절, 파울 베라이터가 선생으로 있던 학급으로 전학을 오고 그와 몇 해를 보낸다. 그때 추적자는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다. 전학 온 첫날, 파울 베라이터는 전학생이 입고 있던 스웨터에 있는 뛰어오르는 사슴 무늬를 보고, 그것을 칠판에 그림으로 옮겨 사슴도약에 대한 전설¹⁴⁾을 학급의 학생들에게 들려준다. 추적자는 프리츠 빈스방어라는 학생의 옆자리에 앉게 되는데, 프리츠는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다. 추적자는 프리츠의 공부를 돕기도 하고, 숙제를 대신해주기도 했다. 파울 베라이터는 두 학생의 협동 작업을 알고 있었지만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파울 베라이터는 갈색 틀로 고정된 유리곽에 흙을 채우

14) 독일 남부에서 전해지는 전설로,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이 계곡의 수직절벽을 타고 올라 도망갔다는 내용이다. W.G. 제발트: 이민자들, 43쪽 참조.

고 쌍무늬 바구미 한 쌍과 한 무리의 알과 번데기와 유충을 넣어 두 학생의 책상 옆 벽에 걸어준다. 그 유리곽의 위쪽에는 부화하는 딱정벌레와 날고 있는 딱정벌레가 있었다.

파울 베라이터는 좋은 선생이었다. 이따금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화가 나도 그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일이 없었다. 학생들에게 화가 날 때면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거나 손수건을 꺼내 깨물기도 했다. 화가 좀 가라앉은 후에는 학생들 사이에 가만히 서 있다가 안경알을 꼼꼼히 닦곤 했다. 이러한 모습은 파울 베라이터가 어떤 선생이었는지, 그의 성품이 어땠는지를 나타낸다. 그는 성마르지 않은 성품의 소유자로, 학생들에게 이롭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는 선생이었다. 이런 에피소드는 파울 베라이터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며, 파울 베라이터의 비문에 적히지 않을 내용들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유일한 증언일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기억이 문화적 기억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누군가를 혹은 한 사건을 이해하는데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파울 베라이터의 제자/추적자는 파울 베라이터의 삶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기억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시 채워나간다. 기억을 더듬어가는 과정에서 추적자는 파울 베라이터가 이따금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곤 했던 일을 기억해낸다.

그가 흥미한 채로 어딘가에 앉거나 서있던 일은 오히려 수업 시간 도중이나 쉬는 시간, 또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던 도중에 아무 때나 일어났다. 항상 기분이 좋고 쾌활한 것처럼 보였던 파울이 실제로 불행 그 자체인 것 같았다.

vielmehr konnte es jederzeit, mitten im Unterricht, während der Pause oder wenn wir unterwegs waren, geschehen, daß er abwesend und abseits irgendwo saß oder stehenblieb, als wäre er, der immer gut gelaunt und frohsinnig zu sein schien, in Wahrheit die Untröstlichkeit selber.¹⁵⁾

추적자는 파울 베라이터가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

15) Werk, S. 62.

했다. 그는 어렸고, 파울 베라이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어른이 된 추적자는 파울 베라이터의 종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만난 루씨 란다우 Lucy Landau 부인으로부터 파울 베라이터의 불행의 원인을 알게 된다.

루씨 란다우는 파울 베라이터의 장례식 책임자였다. 란다우 부인은 일곱 살이 되던 해 미술사가였던 할아버지와 함께 고향인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S시로 이사 왔다. 그녀는 1971년 프랑스에서 파울 베라이터를 처음 만난다. 추적자는 란다우 부인으로부터 파울 베라이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죽기로 결심한 이유를 알게 되고, 이따금 그에게 드리워졌던 불행의 원인을 이해하게 된다.

1934년 당시 스물네 살이던 파울 베라이터는 교생실습을 S시에서 마쳤다. 1935년에 파울 베라이터는 헬렌 홀렌더 Helen Hollaender를 알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해 9월에 헬렌은 빈으로 돌아갔고, 파울 베라이터는 정식 선생이 되어 아이들의 이름을 외울 무렵 공문을 받게 된다. 제3제국이 시작된 후 아버지가 반(半)유대인이었던 파울 베라이터는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었고, 이 사건은 파울 베라이터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 파울 베라이터는 교직에서 파면된 이후 브장송으로 가서 가정교사를 하게 되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망가진다. 그 이후 헬렌 홀렌더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울 베라이터는 란다우 부인에게 끝내 말하지 않았지만 란다우 부인이 직접 알아본 바에 의하면 헬렌은 어머니와 함께 강제수용소로 이송된 것이 확실했다. 추적자는 란다우 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듣는다. 1971년 파울 베라이터가 란다우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한 이야기이다.

그는 곧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실을 알려주듯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가 전부터 잘 알던 켈레벤으로 이번에 오게 된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 밀실공포증 때문에 학교에 출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학생들이 경멸스럽고 혐오스러운 종족처럼 느껴져서 그들의 시선 앞에서 근거가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힘에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혼란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걱정은 가능한 한 억누르고 숨기려고 했어요. 란다우 부인이 말했다. 우리가 만난 첫 번째 날에 파울은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화제를 바꾸는 아이러니를 섞어가며, 얼마 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Er hatte ihr sogleich, sozusagen einleitend, auseinandergesetzt, daß er in das ihm von früher her vertraute Salins-les-Bains gekommen sei, weil sich das, was er als seine Zustände bezeichnete, in den letzten Jahren verschlimmert habe bis auf den Punkt, wo er vor platzangst nicht mehr Schule halten konnte und wo ihm, obschon er doch, wie er eigens betonte, seinen Schüler als verächtliche und hassenswerte Kreaturen erschienen seien, derart, daß er bei ihrem Anblick mehr als einmal eine grund- und bodenlose Gewalt in sich habe ausbrechen spüren. Die Verstörung und das Fürchten um den gesunden Verstand, die aus solchen Bekenntnissen sprachen, habe Paul nach Möglichkeit hintangehalten beziehungsweise überspielt. So habe er ihr auch, sagte Mme. Landau, in den ersten Tagen ihrer Bekanntschaft bereits mit einer alles ins Leichte und Unbedeutende wendenden Ironie berichtet über seinen unlängst erfolgten Versuch, sich das Leben zu nehmen, [...]¹⁶⁾

파울 베라이터가 학생들에게 급기야 복잡한 심정을 갖게 된 것은 그에게 벌어진 참극이 원인이다. 추적자는 위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추적자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개인적인 이야기이다. 파울 베라이터에 대한 루씨 란다우의 또 다른 증언이다.

[...] 파괴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그 사람들이 철저히 침묵하고, 모든 것들을 감추고, 때로는 실제로 잊어버렸다는 것이 전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비열한 태도의 동전의 양면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S시의 커피가게 주인 쇠페를레는 튀른베르크의 시립극장에서 한동안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던 테클라라는 이름의 파울의 어머니에게 반유대인과 결혼한 여자가 자신의 상점에 드나들면 다른 손님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건대 앞으로는 자신의 가게에 매일 드나드는 일은 삼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당시에는 S시에서와 같은 일이 종종 있었고, 모든 것이 소위 진보했음에도 다르지 않다. 그런 태도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16) Werk, S. 65.

이 이야기 전체의 논리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아요.

[...]wissen Sie, die Gründlichkeit, mit welcher diese Leute in den Jahren nach der Zerstörung alles verschwiegen, verheimlicht und, wie mir manchmal vorkommt, tatsächlich vergessen haben, ist eigentlich nur die Kehrseite der perfiden Art, in der beispielsweise der Kaffehausbesitzer Schöferle in S. die Mutter Pauls, die Thekla hieß und im Nürnberger Stadttheater einige Zeit auf der Bühne gestanden hatte, darauf aufmerksam machte, daß die Anwesenheit einer mit einem Halbjuden verheirateten Dame seiner bürgerlichen Kundschaft unangenehm sein könne und daß er sie daher aufs höflichste, wie es sich verstehe, bitte, von ihrem täglichen Kaffehausbesuch Abstand zu nehmen. [...] wie S. es damals war und es, allem sogenannten Fortschritt zum Trotz, unverändert ist; es wundert mich nicht, denn es liegt ja in der Logik der ganzen Geschichte.¹⁷⁾

추적자는 파울 베라이터 일가가 위와 같은 일을 당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추적자는 파울 베라이터가 독일인 혈통이 아니라는 것도 몰랐다. 이러한 이야기는 파울 베라이터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파울 베라이터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위와 같은 일을 겪고도 파울 베라이터는 독일로 돌아온다. 그리고 S시에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친다. 파울 베라이터는 S시의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독일에서 자라난 뺏속까지 독일인이었기 때문이다.

S시의 사람들이 파울 베라이터를 추모하는 방식은 파울 베라이터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형식적인 예의이며, 자신들의 과오를 망자와 함께 잊으려는 태도이다.¹⁸⁾

17) Werk, S. 74.

18) 알라이다 아스만은 “생생하고 개인적인 기억에서 인위적이고 문화적인 기억으로의 이행은 기억의 왜곡, 축소, 도구화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축소와 강화는 공공의 비판, 성찰, 토론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0, 15쪽 참조.

망자를 기리기 위한 방법 중 일반적인 것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한 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죽음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다. 혹은 그와 관련된 기억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물보관소에 기록들을 보존하기도 한다.

파울 베라이터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가 희생된 것이 아니며,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다. 파울 베라이터의 죽음을 기록물보관소에 따로 보관하거나, 그를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결국 S시의 사람들은 파울 베라이터의 죽음을 추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식지에 조사를 신고,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우편물로 보내는 방법을 택한다. 이 과정을 마지막으로 파울 베라이터의 개인사는 공식적으로 끝나고, 그의 삶과 죽음은 거대한 역사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이 된다. 그의 삶과 죽음은 S시에서 보낸 조서로 설명되고, 그 설명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집단의 사람들이 파울 베라이터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모여서 문화적 기억이 된다.

파울 베라이터의 죽음과 S시 사람들의 추모 방식은 문화적 기억이 조작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울 베라이터는 자살했으나, 그를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S시 사람들이 보인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파울 베라이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연인이었던 헬렌 홀렌더는 오스트리아에서 강제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었다. 파울 베라이터의 부모는 각각 심장마비와 우울증으로 사망했다. 파울 베라이터 일가의 죽음은 그들 개인의 불행으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죽음에 S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계가 있다. S시 사람들은 비극적 역사의 사건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죽음을 방관하거나, 적극 개입해 이익을 취하거나, 조서에 정확한 죽음의 경위를 표시하지 않고 묵살함으로써 죽음을 왜곡했다.

파울 베라이터의 개인사는 문화적 기억에 의해 희생당한다. 파울 베라이터의 조서를 읽은 사람에게 그의 죽음은 한 교사의 죽음이고, S시 사람들에게는 망상에 빠진 한 남자의 발작적인 행동에 의한 자살이다. 파울 베라이터의 죽음의 원인은 그의 제자와 측근에 의해 밝혀지지만, 그 사실은 두 사람의 기억 속에서만 유효하다. 두 사람이 훗날 죽게 되면 그 기억조차 사라질 것이다. 파울 베라이터의 이야기는 망자를 추모하고자 하는 의도 - 이 의도는 때로 숭고하다 - 에 의해

목살되는 개인사를 다룬 이야기이다.

2.3. 「암브로스 아델바르트: 내 밑밭은 눈물의 수확이었을 뿐이다」

암브로스 아델바르트 Ambros Adelwarth는 독일 출신으로 1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으로 이주해온 이민자이다. 아델바르트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삶을 추적하는 사람은 아델바르트의 조카 손자로, 생전의 아델바르트를 딱 한번 보았다. 추적자의 친척들은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오래전 친척들은 독일의 W라는 도시로 와서 몇 주 동안 지냈는데 그 자리에 아델바르트도 참석해 있었다. 아델바르트는 조용한 성품으로 어느 장소에서나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친척들이 모두 한 식당에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델바르트에게 최고연장자로서 친지에게 한 마디 해달라고 청했고, 아델바르트는 숟가락으로 유리컵을 몇 번 두드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곱 살이었던 추적자는 당시 아델바르트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가 품위 있어 보였다는 것과, 어린 아이가 이해하기 난해한 단어와 숙어를 들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다. 식당에서 연설을 한 다음날 아델바르트는 다시 스위스로 떠나고 추적자는 그 이후로 다시는 외삼촌 할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그로부터 이년 후 암브로스 아델바르트는 사망했으나, 그의 조카 손자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한다. 아델바르트의 부음이 추적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은 어느 날 추적자의 이모부인 테오 Theo가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테오의 죽음으로 인해 피니 Fini 이모가 쌍둥이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 사건에 비해 노년의 할아버지가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상대적으로 비극적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추적자는 1981년 미국을 방문한다. 떠나기 몇 달 전 어머니의 앨범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이민을 떠난 친척들의 사진을 처음으로 본 것이 미국행의 계기가 되었다. 그 사진을 본 후 추적자는 사진 속 친척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졌고, 직접 그들의 생활을 알아보고자 하는 결심을 한다.

미국에 도착한 추적자는 피니 이모를 방문하고 친척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피니 이모의 외삼촌인 아델바르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피니 이모가 말했다. 암브로스 외삼촌이 자란 환경을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그가 어린이로 살 수 있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단다.

Vergegenwärtigt man sich heute die Verhältnisse, unter denen der Ambros aufgewachsen ist, dann kommt man, sagte die Tante Fini, unweigerlich zu dem Schluß, daß er so etwas wie eine Kindheit nie gehabt hat.¹⁹⁾

암브로스 아텔바르트는 1886년 팔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집안의 첫 번째 남자아이였다. 그가 두 살이 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팔 남매 중 첫째인 장녀가 집안일을 꾸리고 어머니 역할을 했다. 암브로스 아텔바르트 역시 가족의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했다. 그는 다섯 살 때부터 매주 장이 서는 날 바로 위의 누이와 함께 장에 가서 물건을 팔았다.

아텔바르트는 일치감치 집을 떠나 일자리를 구한다. 열세 살 때 집을 떠나 런던으로 갔고, 그 곳의 한 식당 부엌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스위스로 간다. 그리고 열네 살에 스위스에 있는 한 호텔의 수습사원이 된다. 아텔바르트의 차분하고 신중한 모습은 그 직업에 적격이었다. 스위스에서 수습기간을 마친 아텔바르트는 최고의 추천사를 들고 런던으로 간다. 그는 1905년 해변에 있는 호텔에서 다시 사환으로 일하기 시작한다.

아텔바르트는 런던의 호텔에서 일하던 시절, 일본에서 온 사절단과 함께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일본까지 간 적이 있었다. 사절단 중 한명이 교토 근처에 수상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 함께 이년동안 그 곳에서 시종이면서도 손님처럼 대접받았다. 그 시절은 아텔바르트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냈던 때이다.

암브로스 외삼촌은 반은 호텔 종업원으로 반은 사절단으로 2년간 물위에 떠 있는 텅 비어있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내가 아는 한 그곳에서 외삼촌은 그때까지 경험한 세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 편안해했단다.

피니 이모가 말했다. 한 번은 오후시간 내내 아텔바르트 외삼촌은 마마로벡에서 일본에서 그가 보낸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하지만

19) Werk, S. 112.

그 이야기가 어땠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내 생각엔 종이로 만든 방의 벽들과 활쏘기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고, 상록 월계수와 은매화, 야생 동백나무에 대해서 말했던 것 같구나. 또한 열다섯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늪은 녹나무 이야기도 생각나고, 어떤 처형장 이야기와 두견새라고 불리는 일본 삐죽새의 울음소리를 외삼촌이 정말 멋지게 흉내 냈던 것도 기억나는구나.

Halb als Kammerdiener, halb als Gast des Legationsrats hat der Ambros an die zwei Jahre in diesem schwimmenden und so gut wie leeren Haus verbracht und sich dort meines Wissens weit wohler gefühlt als an jedem anderen Ort bis dahin.

Einen ganzen Nachmittag lang, sagte die Tante Fini, hat mir der Aderlwarth-Onkel in Mamaroneck einmal von seiner Zeit in Japan erzählt. Ich weiß aber nicht mehr genau, was es war. Von papierenen Zimmerwänden ist, glaube ich, die Rede gewesen, vom Bogenschießen und viel von immergrünem Lorbeer, Myrten und wilden Kamelien. Und auch an einen alten Kampfbaum entsinne ich mich noch, in den fünfzehn Menschen hineingepaßt haben sollen, und an die Geschichte einer Enthauptung und an den Ruf.²⁰⁾

아텔바르트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자신이 했던 소일거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일본에서의 경험이 유일하다. 이것은 일본에서 체류한 짧은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만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아텔바르트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 솔로몬 Solomon 집안의 집사이자 관리인으로 일한다. 솔로몬 집안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유대인 은행가 집안 중 하나로, 아텔바르트는 솔로몬의 아들인 코즈모 Cosmo의 시종이자 여행 동반자로 그 집안에서 일을 시작하지만, 코즈모는 1920년대 중반에 정신병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코즈모는 사망하기 전 아텔바르트를 동행하여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 추적자는 피니 이모로부터 아텔바르트의 비망록을 받는다. 그의 기록은 글씨가 작고 여러 언어들에 번갈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독이 쉽지 않았다. 초반의 기록은 짤막한 글귀로 구성되어 있었다.

20) Werk, S. 115.

향수. 항해자의 글은 무엇보다도 먼 땅에 대한 기록이다.

Mal dy pays. Le navigateur écrit son journal à la vue de la terre qui s'éloigne.²¹⁾

코즈모가 사망한 후 아델바르트는 솔로몬 집안의 집사가 된다. 아델바르트는 솔로몬 집안에서 그 일가가 최후의 순간을 맞이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낸다. 아델바르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솔로몬의 집의 집사로써 자신의 경력을 마무리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로 점철되어 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끊임없이 일을 했고,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히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돌이켜보면 외삼촌은 사생활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는 단지 정확함으로만 존재했었어. 그가 셔츠만 입고 있는 모습이나 긴 양말을 반들반들 윤이 나는 구두 없이 신고 있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가 잠은 자는지, 조금이라도 쉬기는 했는지가 나에게 항상 수수께끼였지. 당시에 외삼촌은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 중요한 것은 오직 솔로몬 집안의 집안일이 매일 매시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과 늙은 솔로몬의 관심과 습관이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솔로몬 부인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

Rückblickend kann man sagen, daß er gar nicht existiert hat als Privatperson, daß er nur mehr aus Korrektheit bestand. Unmöglich hätte ich ihn mir in Hemdsärmeln vorstellen können oder in Strumpfsocken, ohne seine unfehlbar auf Hochglanz gewichsten Stiefeletten, und es ist mir immer ein Rätsel gewesen, wann er geschlafen oder auch nur ein wenig sich ausgeruht hat. Über die Vergangenheit zu reden zeigte er damals keinerlei Neigung. Wichtig war für ihn ausschließlich, daß in der großen Haushaltung der Solomons die Stunden und Tage störungsfrei ineinander übergingen und daß die Interessen und Gewohnheiten des alten Solomon mit denen der zweiten Mrs. Solomon nicht über Kreuz kamen.²²⁾

21) Werk, S. 188.

22) Werk, S. 144.

아델바르트는 은퇴하기 전까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돈벌이를 시작했고, 그의 직업도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드는 일이었다. 호텔에서 근무하던 시절엔 방문객들의 일과를 정리했고, 부유한 집안의 집사로 근무하면서부터는 그 집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주력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과 함께 그의 인생도 막을 내린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거대한 저택은 공동상속인들의 소유가 되고, 그 집안의 모든 집기들은 경매를 통해 팔려나간다. 아델바르트는 솔로몬의 집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결국 솔로몬이 생전에 아델바르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해준 집 - 마마로백 - 으로 이사한다. 완전히 혼자가 된 아델바르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솔로몬이 죽은 후 아직 집사로써 텅 빈 집을 지키고 있던 아델바르트는 친지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때가 아델바르트 외삼촌이 내게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한 때였다. 외삼촌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에서 끌어 올린 회상들을 매우 천천히 이야기했는데, 지극히 사소한 것들까지도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구나. 외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외삼촌이 수많은 일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하지만, 그런 기억들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주는 추억은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점점 확실히 알게 되었단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기도 했고,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했지. 말하자면 구원이자 동시에 가차 없는 자기 파괴였다.

Es war um jene Zeit, daß der Adelwarth-Onkel angefangen hat, mir die eine oder andere Begebenheit aus seinem zurückliegenden Leben mitzuteilen. Da selbst die geringfügigsten der von ihm sehr langsam aus einer offenbar unauslotbaren Tiefe hervorgeholten Reminiszenzen von staunenswerter Genauigkeit waren, gelangte ich beim Zuhören allmählich zu der Überzeugung, daß der Adelwarth-Onkel zwar ein untrügliches Gedächtnis besaß, aber kaum mehr eine mit diesem ihn verbindende Erinnerungsfähigkeit. Das Erzählen ist darum für ihn eine Qual sowohl als ein Versuch der Selbstbefreiung gewesen, eine Art von Errettung und zugleich ein unbarmherziges Sichzugrunde Richten.²³⁾

과거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된다. 그 기억들이 쌓여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것이 정체성이 된다. 모든 경험이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경험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역시 아니다.

암브로스 아델바르트에게도 과거의 기억이 있지만 그 기억들은 자기 자신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타인이 있고, 그의 진로는 타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의 정체성은 타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아델바르트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자신의 삶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퇴장하자, 그는 혼란에 빠진다. 아델바르트의 조카인 피니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외삼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공허해 보였지.

Je älter der Adelwarth-Onkel geworden ist, desto
hohler ist er mir vorgekommen[...]24)

때로 기억은 남은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다.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것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 헨리 쉐윈 박사의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라는 두 가지 시간의 괴리가 너무 컸고, 그것이 쉐윈 박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아델바르트는 고독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호텔 고객이나 코즈모 슐로몬을 동반하여 여행을 하며 살았던 아델바르트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과거의 기억들이 문득 떠올랐지만, 그러한 것은 곧바로 이어지는 이국적인 풍경에 의해 곧 사라졌다. 코즈모와 세계 여행을 하던 시절을 기록한 비망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오늘 그곳을 지나갈 때, 길모퉁이에서 시야가 열리고 멀리 산의 푸른 능선과 눈 덮인 올림포스 산의 정상이 보였다. 무섭도록 오랫동안 심장이 뛰었기에 나는 한순간 내가 스위스나 고향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Wie wir durch es hindurchgehen heute, eröffnet sich an einer

23) Werk, S. 146.

24) Werk, S. 129.

Straßenecke unvermutet ein Fernblick auf eine blaue Berglinie und das beschneite Haupt des Olymps. Einen furchtbaren Herzschlag lang glaube ich mich in der Schweiz oder wieder daheim.²⁵⁾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던 아델바르트는 풍경 곳곳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올린다. 그러나 향수에 빠질 겨를 없이 그는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그가 몇 해에 걸쳐 여행을 다니고, 돌아온 후에는 집사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는 동안 과거의 기억은 현재로 돌아올 틈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혼자가 되었을 때, 어릴 적 고향의 기억과 더불어 과거 여행을 다니던 시절의 기억도 모두 과거의 아름다운,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을 떠오르게 하며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현재도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의 기억이 된다. 암브로스 아델바르트는 다양한 장소에서 너무 많은 경험을 하며 추억을 만들었고, 그의 삶 속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암브로스가 있는 곳에 속해 있지 않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부재를 뚜렷이 부각시켰다. 그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오자, 아델바르트는 스스로 정신병원으로 떠난다. 아델바르트는 이 전부터 기억의 이러한 속성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의 여행 비망록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씌여졌다. 아델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는 후기에서 덧붙였다. 나에게 기억이란 때로 일종의 어리석음처럼 여겨진다. 기억은 머리를 무겁고 어지럽게 한다. 시간의 고향을 따라 가며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치솟은 탑 위에서 까마득한 땅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Die Erinnerung, fügt er in einer Nachschrift hinzu, kommt mir oft vor wie eine Art von Dummheit. Sie macht einen schweren, schwindligen Kopf, als blickte man nicht zurück durch die Fluchten der Zeit, sondern aus großer Höhe auf die Erde hinab von einem jener Türme, die sich im Himmel verlieren.²⁶⁾

25) Werk, S. 193.

26) Werk, S. 215.

2.4 「막스 아우라흐: 날이 어두워지면 그들이 와서 삶을 찾는다」

막스 아우라흐 Max Aurach는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화가이다. 그는 유대인 혈통으로 독일에서 태어났고, 18살이 되던 1943년에 미술공부를 위해 영국의 맨체스터에 왔다. 막스 아우라흐의 삶의 흔적을 추적하는 사람은 우연한 계기로 아우라흐를 만났다. 영국으로 이민 온 추적자는 맨체스터 거리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우연히 아우라흐의 아뜰리에를 발견했고, 그것을 계기로 그와 친분을 쌓게 된다.

아우라흐의 기억은 켈윈 박사의 기억과는 정반대의 선상에 있다. 그의 기억은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그러나 아우라흐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일을 멈출 수 없다. 그 기억은 그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막스 아우라흐는 자신의 아뜰리에를 둘러보는 추적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에게는 작업실 안의 물건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지나가듯이 말했다. 모든 것이 이전 처럼, 그가 정리해놓은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어야 하며, 그림을 그리면서 생기는 찌꺼기와 끊임없이 내려앉는 먼지 들 외에는 어떤 것도 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먼지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임을 서서히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먼지는 빛이나 공기나 물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그가 말했다. 먼지를 깨끗이 닦아낸 집보다 더 참기 힘든 곳은 없으며, 사물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집, 사물의 얇은 막들이 한 꺼풀씩 미세하게 분해되어갈 때 생기는 회색 벨벳 같은 침전물 아래에 모든 것들이 가만히 놓여 있을 수 있는 집보다 더 편안한 곳은 없다고 했다. 실제로 페르버가 몇 주 동안 한 점의 인물화 앞에 서서 작업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그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먼지를 늘려가려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곤 했었다.

Es sei für ihn stets von der größten Bedeutung gewesen, sagte Aurach beiläufig einmal, daß nichts an seinem Arbeitsplatz sich verändere, daß alles so bleibe, wie es vordem war, wie er es sich eingerichtet habe, wie es jetzt sei, und daß nichts hinzukomme als der Unrat, der anfallt bei der Verfertigung der Bilder, und der Staub, der sich unablässig herniedersenke und der ihm, wie er langsam begreifen lerne,

so ziemlich das Liebste sei auf der Welt. Der Staub, sagte er, sei ihm viel näher als das Licht, die Luft und das Wasser. Nichts sei ihm so unerträglich wie ein Haus, in dem abgestaubt wird, und nirgends befinde er sich wohler als dort, wo die Dinge ungestört und gedämpft daliegen dürfen unter dem grausamsten Sinter, der entsteht, wenn die Materie, Hauch um Hauch, sich auflöst in nichts. In der Tat dachte ich mir oft, wenn ich Aurach über Wochen hinweg an einer seiner Porträtstudien arbeiten sah, es ginge ihm vorab um die Vermehrung des Staubs.²⁷⁾

위의 이야기는 아우라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는 것들에 애착을 느끼고, 과거의 산물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한다. 아우라흐가 과거의 유물들을 현재의 시간 속으로 불러들이려 하는 것은 그의 과거와 관계가 있다.

아우라흐는 유대인 혈통으로 독일에서 태어나 자랐다. 히틀러 집권 당시 독일에 살던 그의 가족들은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나치가 아우라흐의 집에 몰려와 그림과 가구, 고가품들을 몰수해 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정의 밤²⁸⁾ 이후 아우라흐의 아버지는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6주가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온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우라흐의 아버지는 독일을 떠날 결심을 한다. 그는 영국 영사를 매수해서 아들의 비자를 얻어낸다. 그는 아들을 먼저 영국으로 보낸 후 뒤따라 영국으로 이주할 생각이었으나, 그 계획은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영국에 도착한 막스 아우라흐는 이미 그 곳에 거주하고 있던 삼촌과 함께 지냈고, 경제 상황에 맞추어 다소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삼류 사립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약소국 외교관의 아이들이거나, 다른 일로 영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이었다. 그 학교의 교장은 정규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왜곡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 학교의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해 아우라흐는 독일의 상황, 부모님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사정을 잊게 된다. 아우라흐는 학창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27) Werk, S. 238.

28) 수정의 밤(Kristallnacht)은 1938년 11월 9일 나치 대원들이 독일 전역의 수 만개에 이르는 유대인 가게를 약탈하고 2백50여개 시나고그(유대교 사원)에 방화를 저지른 날을 뜻한다.

여하튼 그렇게 학교에 팽배해 있던 도덕적인 무관심이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어떤 자유의 감정을 느끼도록 해주었어. 그랬기 때문에 집으로 보낼 편지를 쓰거나 이 주일에 한번 씩 도착하는 부모님의 편지를 읽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졌지. 1941년 11월 점점 고통스러워지던 편지왕래가 끝났을 때, 나는 스스로 죄스럽기는 했지만 우선 홀가분한 기분이었어. 다시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네.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자신할 수는 없네. 하지만 오늘날 돌이켜보면, 내 삶이 외향적인 가지까지 결정된 듯 한 느낌이 들어. 부모님이 강제이송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 믿기지 않는 사망 소식이 한참이 지나서야 내게 도착했던 것, 처음에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던 그 소식의 의미를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과 같은 일들 말이야. 부모님이 겪은 고통과 나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많이 노력했고, 이렇게 은둔생활을 하는 가운데 간혹 영혼의 안정이 유지되는 때도 없지 않았지만, 학창시절에 나를 덮쳤던 그 불행이 내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후에도 계속 자라나서 그 나쁜 피는 사악한 꽃을 피우고, 독성의 잎으로 내 머리 위에 천장을 만들었지. 그 천장은 지난 몇 년 동안에도 내게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나를 어둠으로 덮었네.

Jedenfalls hat der das Schulleben bestimmende Amoralismus mir ein gewisses, bis dahin unbekanntes Gefühl der Freiheit vermittelt. Um so schwerer ist es mir darum von Mal zu Mal gefallen, nach Hause zu schreiben beziehungsweise die alle vierzehn Tage von zu Hause anlangenden Briefe zu lesen. Als die immer mühseliger werdende Korrespondenz im November 1941 abriß, war ich zunächst, auf eine mir selbst sträflich erscheinende Art, erleichtert. Daß ich den Briefwechsel nie mehr würde aufnehmen können, das ist mir erst allmählich klar geworden, ja, um die Wahrheit zu sagen, ich weiß immer noch nicht, ob ich es ganz schon begriffen habe. Es erscheint mir jedoch heute, als sei mein Leben bis in seine äußersten Verzweigungen hinein bestimmt gewesen von der Verschleppung meiner Eltern nicht nur, sondern auch von der Verspätung und Verzögerung, mit der die zunächst ungläubhafte Todesnachricht bei mir eintraf und in ihrer nicht zu fassenden Bedeutung nach und nach erst in mir

aufgegangen ist. Welche Vorkehrungen ich bewußter- wie unbewußtermaßen auch traf, um mich zu immunisieren gegen das von den Eltern erlittene Leid und gegen mein eigenes, und wie sehr es mir zeitweise gelungen sein mag, in meiner Zurückgezogenheit das seelische Gleichgewicht mir zu erhalten, das Unglück meines jugendlichen Noviziats hatte so tief Wurzel gefaßt in mir, daß es später doch wiederaufschließen, böse Blüten treiben und das giftige Blätterdach über mir aufwölben konnte, das meine letzten Jahre so sehr überschattet und verdunkelt hat.²⁹⁾

막스 아우라흐의 부모는 결국 독일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다.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과거의 것들은 아우라흐에게 고통의 동의어가 된다. 고통과 과거의 기억은 연결되어 있고, 두 가지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아우라흐는 언젠가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친다. 허리 통증을 견디며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던 아우라흐는 과거에 자신이 지금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진 찍힌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아우라흐는 허리 디스크 통증을 견디던 순간 다음과 같이 깨달았다.

축축한 곰팡이가 피어 있는 회반죽벽에 이마를 기대고 밤새도록 벽 앞에 서 있었던 것, 시간이 흐를수록 한기가 들었던 것, 눈물이 흘러 내렸던 것, 내가 무의미한 말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던 것, 그리고 고통으로 인한 그 완벽하고 끔찍한 마비상태가 오랜 세월을 거쳐 내 안에 뿌리박은 내면의 상태와 매우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Ich erinnere mich nur noch, daß ich, die Stirn gegen den feuchtmodrigen Verputz gepreßt, die ganze Nacht hindurch vor dieser Wand gestanden bin, daß es immer kälter wurde, daß ich unsinnige Dinge zu murmeln begann und daß ich dabei doch spürte, wie der furchtbare Zustand einer vollkommenen Schmerzlähmung der inneren Verfassung, die über die Jahre die meine geworden war, auf die denkbar akkurateste Weise entsprach.³⁰⁾

29) Werk, S. 285.

허리 디스크로 인해 물리적 고통을 느끼던 아우라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본질을 깨닫는다. 그 고통은 내면의 고통과 같은 형태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아우라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실체를 보게 된다. 그 고통의 기저에는 과거의 기억, 즉 그의 부모가 있었다.

아우라흐는 영국에 정착한 이후 노년에 화가로서의 경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명성을 얻게 된 이후에도 아우라흐는 종전의 삶의 형식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 자신의 낡고 정돈되지 않은 작업장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하루에 열 시간 정도를 그림 작업에만 몰두한다.

아우라흐가 겪은 불행은 그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은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었다. 아우라흐가 과거의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점차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불행한 일에 그의 잘못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상은 무의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암기한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기억술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회상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오르는 것이다.³¹⁾

허리 디스크 통증을 느끼며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 아우라흐는 회복 후 여행을 떠난다. 그 여행은 본격적으로 기억의 흔적을 찾기 위한 것이다. 아우라흐는 그 여행길 곳곳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느낀다. 과거에 열정적인 동반자였던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랐던 일, 이따금 아버지의 작업을 도왔던 일들을 기억해낸다. 여행을 하며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어보던 중 문득 아우라흐는 다음과 같이

30) Werk, S. 255.

31) 알라이다 아스만은 기억과 회상의 특성을 구분지었다. 회상의 경우에는 시간의 차원이 결정적이지만 기억의 본질을 이루는 저장의 경우에 이 시간의 차원은 정지되어 있고 배제되어 있다고 보았다. 시간이 활성화되어 기억의 과정에 개입할 경우에는 저장과 인출 사이에 근본적인 불일치가 발생한다. 즉, 기억술에서는 기억의 저장과 인출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반면 회상에서는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알라이다 아스만은 저장의 절차와 회상의 과정을 서로 대비된 것으로 보았다. 암기하는 것과 달리 회상은 의도적 행위가 아니다. 그 때문에 독일어에서는 ‘man erinnert sich’(기억하다)나 ‘man erinnert sich nicht’(기억하지 못하다)처럼 재귀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회상하다’, 즉 무엇이 누군가에게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 끝나고 난 뒤에야 그 일에 대해 비로소 의식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기억이란 말과 회상이라는 말을 개념적으로 서로 구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뵘어는 기억은 생각한 것, 즉 지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며, 회상은 개인적 경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기억의 내용들은 “내가 가지고 올 수도 가져와 질 수도 있다. 그러나 회상은 가져올 수도 가져와질 수도 없다.”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0, 33쪽 참조.

느낀다.

콜마에서 기차를 타고 참으로 놀랍도록 아름다운 스위스를 다시 달리는 동안, 삼십 년간의 지나간 시간과 관련된 풍경과 경험이 떠올랐다고 아우라흐는 말했다. 하지만 팰리스 호텔에서 체류하는 동안 삼십년 전의 기억들이 어떤 묘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결국 나는 방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몇 시간씩 침대에 누워 가만있었네. 물론 그로 인해 당시에 시작된 신경쇠약증이 더 심해졌지.

Diese mit der dreißig Jahre zurückliegenden Zeit verbundenen Bilder und Ereignisse sind mir, sagte Aurach, bereits während der Bahnfahrt durch die tatsächlich zum Erstaunen schöne Schweiz wieder in den Sinn gekommen, aber es ging von ihnen, wie sich während meines Aufenthalts im Palace immer deutlicher erwies, eine eigentümliche bedrohung aus, die mich schließlich veranlaßte, mein Zimmer zu versperren, die Jalousien herunterzulassen und stundenlang auf dem Bett liegengubleiben, wodurch sich die aufkommende Nervenschwäche naturgemäß nur noch verschlimmerte.³²⁾

여행 도중 아우라흐는 과거 기억의 위협성을 감지한다. 그 기억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직감한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아우라흐는 종종 환각을 보거나, 기이한 꿈을 꾀다. 그는 그가 꾀 것이 꿈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가 본 환각이나 꿈에는 항상 그의 부모의 물건들이 등장했다. 부친이 과거에 전시했던 작품들이 꿈속에 등장하기도 하고, 먼지로 뒤덮인 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부모의 거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제 과거의 기억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방에서 튀어나오고, 아우라흐는 기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아우라흐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 기억 속에 자신의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부모는 가장 끔찍한 기억 속에서만 숨을 쉰다. 이 점이 아우라흐의 기억이 그를 괴롭히는 원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거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다. 아우라흐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홀로 살아남은 죄책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해서 웃고 있는 부모의 모습

32) Werk, S. 258

을 본다.

추적자와 작별인사를 하던 날, 아우라흐는 그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기록을 준다. 그 기록은 아우라흐의 어머니인 루이자 아우라흐가 1939년과 1941년 사이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기록은 망각에 대비하여 기억을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즉 기억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우라흐의 어머니의 일기장은 개인의 체험을 적은 것으로, 막스 아우라흐에게는 망자를 떠오르게 하는 훌륭한 하지만 고통스러운 물건이다. 이 기록물은 루이자 아우라흐로부터 막스 아우라흐에게로 건네지고, 다시 추적자에게 넘겨진다. 이 기록물을 매개로 하여 루이자 아우라흐의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고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살고 또 그 다음 세대에 남는다.

Ⅲ. 『이민자들』에 나타나는 공간

공간은 물리적 실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은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당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 즉, 공간의 의미는 고정적이지 않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공간이 세 가지 계기에 의해 생산된다고 보았다. 세 가지 계기는 각각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이다. 그는 이 계기들이 서로 흡수하고 제한하거나 대립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공간이 생산되거나 재생산된다고 말한 바 있다.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에서 주목할 점은 이 계기들이 독자적인 요소가 아니라 서로 교섭해 변화하는 벡터라는 점이다.³³⁾

르페브르의 이론처럼 공간은 다양한 의도와 이데올로기를 흡수하여 만들어지며, 그것을 사람들의 삶에 투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연구를 통해 해당 사회와 시대가 접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간과 그 안의 인물들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자신의 의지를 공간에 투영하고, 그 공간으로부터 다시 영향을 받는다.

공간의 위와 같은 특성은 소설 『이민자들』의 등장인물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주인공들의 ‘기억’이 공간에 투영되어 있고, 그들이 거주하는, 혹은 후에 거주지로 선택한 장소는 그들의 고뇌를 드러낸다. 때로 등장인물들이 창조하는, 혹은 거주하기를 선택하는 공간은 그들의 저항의 표시가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공간의 다양한 특성을 토대로 『이민자들』에 묘사되는 공간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기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 헨리 켈원 박사: 저항의 공간

켈원 박사가 사는 공간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 그의 집의 규모는 켈원 박사 부부가 한때 부자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공간엔 정원, 테니스장과

33) 첫 번째 계기인 ‘공간적 실천’은 사람들의 일상이 공간을 창조해내며, 그 공간이 다시 개개인의 일상을 조직하고 재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계기 ‘공간의 재현’은 실제 물리적 공간들에 특정 권력의 이데올로기와 담론이 덧붙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재현의 공간’은 앞 선 두 가지 계기들에 의해 창조된 공간에 부과된 규범과 규칙에 반항하며 살아 있는 공간을 도모하고 만들려는 온갖 시도들을 일컫는다. 국토연구원: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2001, 473쪽 참조.

별채가 있고, 세놓을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있다. 켈윈 박사의, 정확히 말하면 그의 부인인 헤디 켈윈의 집에 머무르게 된 스위스 출신의 세입자 부부는 프라이어스 게이트Prior's Gate라고 불리는 그 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전날 저녁 켈윈 부인은 우리에게 결채의 이층에 있는 방을 보여 주었다. 가구들은 좀 별스러웠지만, 그것만 빼면 아주 훌륭하고 큰 방이었다. 우리는 그 방에서 앞으로 몇 달간 지낼 생각에 매료되었다. 높은 창문을 통해 정원과 공원, 하늘의 수평으로 길게 펼쳐진 구름의 전망은 삭막한 실내장식을 보상해주고도 남았기 때문이었다. 눈길을 그저 창 쪽으로 돌리기만 해도 등 뒤의 것들, 거대하고 '옛 독일식'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불쌍사나운 식탁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엌 벽을 뒤덮고 있는 완두콩 색깔 칠도 녹아 흘러졌으며,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청록색의 가스냉장고도 기적처럼 자취를 감췄다.

Mrs. Selwyn hatte uns am Abend zuvor die im ersten Stock eines Seitenflügels gelegenen, mit eher eigenartigem Mobiliar ausgestatteten, aber sonst schönen und großen Zimmer gezeigt, und wir waren von dem Gedanken, hier einige Monate verbringen zu können, sogleich sehr angetan gewesen, denn der Ausblick von den hohen Fenstern auf den Garten, den Park und die Wolkenbänke am Himmel war weit mehr als nur ein Ausgleich für das düstere Interieur. Man brauchte nur hinauszuschauen, und schon versank hinter einem die gigantische, in ihrer Häßlichkeit nur mit dem Wort altdeutschannähernd richtig bezeichnete Kredenz, löste der erbsfarbene Anstrich der Küche sich auf, entschwebte, wie durch ein Wunder, der türkisgrüne und vielleicht gar nicht ganz ungefährliche Gaskühlschrank.³⁴⁾

헨리 켈윈 박사는 좀처럼 집안에서 지내는 일이 없다. 그는 세입자 부부와 처음으로 조우할 때, 자기 자신을 일종의 “장식용 은둔자 a kind of ornamental hermit”³⁵⁾라고 소개하며 집이 아내의 소유라는 것을 밝힌다. 켈윈 박사는 좀처럼 집 안에서 지내는 일이 없다. 그는 주로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날씨가 좋

34) Werk, S. 15.

35) Werk, S. 11.

지 않을 때는 가끔 정원의 한 구석에 화산석으로 담을 쌓은 작은 별채에 기거했다. 이 별채 안에는 최소한의 생필품만 구비되어 있고, 켈윈 박사는 이 별채를 사치스럽고 쓸모없는 건물이라는 뜻으로 '폴리 Polly'라고 부른다.³⁶⁾

노년에 이른 켈윈 박사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기도 하지만, 물질에 대한 흥미 자체를 잃은 것처럼 보인다. 반면 헤디 켈윈은 남편인 켈윈 박사와는 성향이 다르다. 후에 켈윈 박사가 자신이 오랫동안 겪고 있던 고통을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 세입자 부부에게 털어놓게 되는 것은 켈윈 부부의 가치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켈윈 박사는 자신의 부인보다는 오히려 세입자 부부에게서 편안함을 느낀다. 세입자 부부 역시 헤디 켈윈이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세입자 부부가 방을 단장하는 장면에서 바로 위와 같은 점이 드러난다. 세입자 부부는 입주하게 될 집의 위치와 풍경은 높게 평가하지만, 자신들이 기거할 방의 인테리어와 가구는 혹평을 한다. 세입자 부부는 헤디 켈윈의 허락을 얻어 방을 임의로 장식한다.

스위스의 비일에서 공장주의 딸로 태어난 헤디 켈윈이 사업수완이 매우 뛰어난 여자임이 곧 밝혀졌는데, 그녀는 우리 취향에 맞게 셋집을 꾸며도 좋다고 허락했다. 주철기둥 위에 따로 증축된 별채에 설치되어 있고 좁은 판자다리만 건너면 닿을 수 있었던 욕실을 우리가 흰색으로 칠했을 때 그녀는 완성된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 올라오기까지 했다. 달라진 욕실이 그녀 눈에는 기이하게 보였는지 그녀는 애매한 평을 내놓기도 했다. 전에는 그녀에게 항상 낡은 온실을 떠올리게 했던 욕실이 이제는 새로 만든 비둘기집을 떠올리게 한다는 그녀의 평은 나에게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지독한 혹평으로 들렸기에 나는 이러한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Hedi Selwyn, eine, wie sich bald herausstellte, äußerst geschäftstüchtige Fabrikantentochter aus Biel in der Schweiz, erlaubte uns, die Wohnung unseren Vorstellungen entsprechend ein wenig herzurichten. Als wir das das Badezimmer, das in einem eigenen Anbau auf gußeisernen Säulen untergebracht und nur über einen Steg zu erreichen war, weiß ausgemalt hatten, kam sie sogar herauf, das vollendete Werk zu begutachten. Der für ihre Augen

36) Werk, S. 18.

ungewöhnliche Anblick gab ihr den kryptischen Kommentar ein, das Badezimmer, das sie sonst immer an ein altes Treibhaus erinnert habe, erinnere sie nunmehr an einen neuen Taubenkugel, eine Bemerkung, die mir als ein vernichtender Urteilsspruch über die Art, wie wir unser Leben führten, bis heute im Sinn geblieben ist, ohne daß ich es vermocht hätte, an dieser Lebensführung etwas zu ändern.³⁷⁾

위의 대목으로 세입자 부부와 헤디 켈원이 공간을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용성에 대해 세입자부부와 헤디 켈원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세입자 부부는 욕실을 밝은 색으로 덧칠함으로써 다른 공간의 어둠을 상쇄하려 한다. 세입자 부부가 공간을 꾸미는 방식은 그들이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공간과 주변의 조화를 추구한다. 반면 헤디 켈원에게 흰색으로 덧칠된 욕실은 기이하고 불필요한 장식으로 보이며, 인간에겐 쓸모없는 공간처럼 여겨진다. 헤디 켈원에게 공간은 특정한 목적 하에 실용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헤디 켈원이 사는 공간은 그녀의 성향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다. 이 집의 공간 구획에 대한 세입자 부부의 생각이 드러나는 대목이 하나 더 있다.

복도 건너편에는 돌바닥에서 약 삼십 센티미터 높이의 벽에 문이 하나 나있었다. 이 문을 통해 어두운 계단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로부터 각 층마다 이중벽 뒤에 숨어 있는 복도들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이 복도들은 석탄을 담은 양동이나 나무 광주리, 청소도구, 침대 시트, 찻 쟁반 따위를 들고 쉼 새 없이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 하인들의 통행을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었다. 나는 종종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방의 벽 뒤 어디선가 항상 하인들의 그림자가 휙휙 스치고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상해보려고 했고, 그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루가 다르게 쌓여만 가는 일들을 쉼 새 없이 처리한 유령 같은 존재들을 무서워해야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Jenseits des Korridors war zirka dreißig Zentimeter über dem steinernen Boden eine Tür in die Wand eingelassen. Durch diese betrat man ein dunkles Steigenhaus, von welchem auf

37) Werk, S. 15.

jedem Stockwerk hinter doppelten Wänden verborgene Gänge abzweigten, die angelegt worden waren, damit die mit Kohleeimern, Holzkörben, Putzzeug, Bettwäsche und Teetablets unablässig hin- und herlaufenden Dienstboten kreuzten. Ich versuchte mir oft auszudenken, wie das Innere der Köpfe der Leute beschaffen gewesen sein mußte, die mit der Vorstellung leben konnten, daß hinter den Wänden der Zimmer, in denen sie sich aufhielten, irgendwo immer die Schatten der Dienerschaft am Huschen waren, und ich bildete mir ein, daß sie Angst hätten haben müssen vor dem gespenstischen Wesen derer, die für ein geringes Geld rastlos die vielen alltäglich anfallenden Arbeiten verrichteten.³⁸⁾

위와 같은 공간의 기능적 분류는 세입자 부부에게는 기이하게 보인다. 결채와 별채가 있는 이 넓은 공간은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헤디 켈윈과 세입자 부부의 위와 같은 에피소드는 이 집의 구조를 나타냄과 동시에, 켈윈 박사와 세입자 부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입자 부부는 공간의 구획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인들의 생활이 고단하지는 않을지를 고려해보기도 한다. 세입자 부부에게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공간의 철저한 분리가 철저히 기능 위주의 목적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식사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게끔 구성된 이 공간의 배치는 세입자 부부에게는 조화롭지 않은 것이다. 식사의 과정을 이루는 하인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감추도록 공간을 분리해서, 결국은 시중드는 사람들의 그림자만이 움직이고, 식기를 나르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공간 구획은 하인들을 사람이 아닌 유령처럼 느껴지게 한다. 과정을 이루는 공간은 어둡고, 최소한으로만 노출되게끔 가려져 있다. 세입자 부부는 그 점을 간파하고 그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후에 켈윈 박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상대로 세입자 부부를 택한 것은 세입자 부부의 성향과 자신의 성향이 어느 정도는 일치하기 때문이다.

켈윈 박사와 헤디 켈윈은 영국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다. 헤디 켈윈은 스위

38) Werk, S. 16.

스 출신이고 켈원 박사는 리투아니아 출신으로 유년시절 영국으로 이주해왔다. 켈원 박사가 헤디 켈원 보다 영국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국생활에 적응하는 사람은 헤디 켈원이다. 이 지점에서 헨리 켈원 박사와 헤디 켈원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 즉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고, 그 차이가 그들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이유이다.

켈원 박사는 목적을 지향하여 이루어진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 오히려 그는 ‘목적’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풀잎을 세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라고 그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 것에 대한 병명으로 말했다. ‘일종의 취미 같은 것인데, 괜히 정신만 사나워지는 것 같습니다.’

I was counting the blades of grass, sagte er zur Entschuldigung für seine Gedankenverlorenheit. It's a sort of pastime of mine. Rather irritating, I am afraid.³⁹⁾

켈원 박사가 거부의 방식으로 택한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물질을 추구하는 헤디 켈원의 공간과 네겔리와 추억과 고향인 리투아니아로 대변되는 과거의 가치 사이에 끼어있다. 과거의 시간을 다시 재현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네겔리는 실족사했고, 고향인 리투아니아로 돌아갈 수도 없다.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그는 ‘물질’과 ‘목적’의 상징인 공간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그가 마침내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공간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는 한 번도 살육의 목적으로 사용해본 적이 없는 총으로 별채의 침대 위에서 자살한다.

3.2 암브로스 아텔바르트: 해방의 공간

3.2.1 공간의 기능

이민자들이 우선시하는 가치는 정착과 소속일 것이다. 고향을 떠난 이민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고향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주해 온 나라에 소속된 국민이다. 이민 온 나라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필

39) Werk, S. 10.

수적인 일이며, 다른 조건들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 정착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외적, 내적인 요인이 그들의 정착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 외부적 요인은 남들과 다른 외모와 언어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이민자들을 눈에 띄게 한다. 주목을 끈다는 것은 이민자들의 외적 요인이 그 장소에 완전히 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외부인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언어 역시 문제가 된다. 언어를 습득하는 동안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제한이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 겪는 어려움은 내부적인 문제를 수반한다. 이민자들은 이주해 온 국가에 행정적으로만 소속되어 있을 뿐, 자신들이 현재 있는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결국 이주민들은 떠난 나라와 현재 속해 있는 국가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주민들은 떠난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 두 공간 사이에 있다.

아텔바르트 역시 이민자다. 그는 스위스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미국에 정착한다. 젊은 시절 아텔바르트는 스위스나 미국에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언어 습득이 빨랐기에 직업을 구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이는 물질적인 걱정을 덜어주었다. 언어를 빨리 습득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텔바르트는 자신이 있는 장소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아텔바르트가 선택한 직업은 물리적 풍요와 함께 그에게 소속감을 부여했다. 스위스의 한 호텔에서 일하며 그곳에서 머물었고, 미국에서는 부유한 집안의 집사 역할을 했다. 호텔에서 일하던 시절 그는 호텔 소속으로, 그곳에서 생활 - 직업과 사생활 - 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공식적으로 호텔과 한 일가의 집에 소속된 사람이었다. 아텔바르트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그가 머문 장소에 자연스럽게 소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소속감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현재 속해 있는 공간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호텔 소유주나 솔로몬 일가는 아텔바르트를 신뢰하고 있지만, 그들은 혈연관계가 아니다. 아텔바르트가 속해 있는 공간과 아텔바르트 사이에는 보장된 연결고리가 없다. 그 연결고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끊기면, 아텔바르트는 자신의 역할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고, 그 날이 오면 그는 그 공간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때 아텔바르트는 자신이 소속감이라고 느꼈던 것의 본질을 알게 된다. 아텔바르트와 그를 둘러싼 공간의 관계는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델바르트는 자신의 역할을 매개로 하여 자신이 있는 공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은퇴 후 처음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게 됐지만, 아델바르트는 처음으로 자신이 현재 아무 데에도 소속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아델바르트가 머물렀던 공간은 통제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호텔의 수습사원으로서, 한 가문의 집사로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공간을 통제 하에 두었으며, 자신 역시 통제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아델바르트의 사생활 역시 그의 직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그의 삶 전체가 통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아델바르트에게 공간과 소속감과 통제는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된 아델바르트는 혼란과 무기력 속으로 빠진다. 그에게 자유와 고요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이 다룰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아델바르트는 통제가 아닌 자유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여태까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문제점을 깨닫는다. 이미 노년기에 이른 아델바르트는 처음으로 자신 소유의 집을 갖게 되고, 그 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민 초기에 해야 했던 정착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으로 갖게 된 집안에서 아델바르트는 철저한 고독을 느낀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를 괴롭히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한가해진 아델바르트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는 피니가 방문할 때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록 아델바르트의 정신적인 상태는 악화되어 간다. 결국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이야기를 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다.

암브로스 아델바르트는 주어진 상황에 혼란을 느끼고, 곤란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결단을 내린다. 아델바르트는 자발적으로 이타가Ithaca⁴⁰⁾ 정신병원으로 들어간다.

3.2.2 정신병원

암브로스 아델바르트는 자발적 의지로 정신병원으로 들어간다. 은퇴한 후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것이 그 이유지만, 사실 그가 정신병원을 찾아가

40) 이타카Ithaca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오딧세이의 고향이다.

자진해서 입원한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델바르트는 정신 병원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점을 없애기를 바란다.

스스로 정신병원으로 향하는 아델바르트의 태도는 절망적이지 않다. 이는 그가 정신병원을 기피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델바르트는 자신의 집에 찾아올 피니에게 쪽지를 남겨 놓고 홀로 집을 떠난다. 쪽지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타카로 갔다. 영원히 너의 것인 - 암브로스.

Have gone to Ithaca. Yours ever - Ambrose.⁴¹⁾

이타카 정신병원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생활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아델바르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학문적 광기에 사로잡힌 의사였다. 판슈톡Fahnstock 교수는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들을 자신의 데이터에 맞춰서 보는 부류의 의사였다. 실제로 그는 한 환자에게 며칠 간격으로 백번이 넘게 충격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 병원에는 그의 일을 도와주는 애브램스키Abramsky 박사가 있었다. 두 사람이 아델바르트에게 내린 진단은 엇갈린다. 판슈톡 박사는 아델바르트가 노년의 중증우울증이 무감각한 긴장병과 결합한 경우라고 진단했으나, 애브램스키 박사는 보통 그러한 상태에 수반되는 육체적인 퇴락현상이 아델바르트에게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에 그 병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아델바르트는 충격요법을 받게 되었고, 그 치료는 아델바르트의 육체와 정신을 점차 망가뜨린다. 그러나 아델바르트는 기꺼이 충격요법을 받아들인다. 판슈톡 박사의 사실상 후계자였던 애브램스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주목할만한 것은 또한 아델바르트씨가 기꺼이 충격요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1950년대 초반에 시행되었던 충격요법은 실로 고문이나 학대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개 완력을 써서 강제로 기구실로 끌고 가야 했다(애브램스키 박사가 썼던 표현은 ‘결박한 채’(frogmarched)였다), 아델바르트씨는 정해진 시각만 되면 정확하게 나타나 기구실 문앞 등반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벽에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자신에게 닥칠 일

41) Werk, S. 150.

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Bemerkenswert war auch, mit welcher Bereitwilligkeit Ambrose sich der Schockbehandlung unterzog, die zu Beginn der fünfziger Jahre, wie mir rückblickend erst aufgegangen ist, wahrhaftig an eine Folterprozedur oder ein Martyrium heranreichte. Mußten die anderen Patienten nicht selten mit Gewalt in die Apparatenumkleidekabine gebracht werden (frogmarched, lautete der Ausdruck, dessen sich Dr. Abramsky an dieser Stelle bediente), so saß Ambrose zum anberaumten Zeitpunkt jedesmal schon auf dem Hocker vor der Türe und wartete, den Kopf an die Wand gelehnt, die Augen geschlossen, auf das, was ihm bevorstand.⁴²⁾

아델바르트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이유는 그가 충격요법으로 인해 그의 고통을 경감시키려하기 때문이다. 당시의 과격한 치료는 아델바르트가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는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들과 관계가 있다. 인생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과거의 기억들이었다. 병을 앓다가 죽은 코즈모 쏘로몬과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느꼈던 그 시절과, 호텔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때 방문했던 일본에서의 체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세계 곳곳을 떠돌던 그 시절은 모두 과거 속에 편입되어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으로 변했고,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아델바르트 혼자뿐이다. 현재 그는 행복한 시절로 회귀할 수 없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이 그를 우울증에 걸리게 한다.

정신병원은 근대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으로, 푸코Foucault는 이 공간이 한 개념이 변해가는 과정을 반영한다고 보았다.⁴³⁾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광기는 사회 속에서 그 위치를 달리해왔다. 근대 초기 광인들은 사회 속에서 격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변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이 만들어진다.

그 공간에 아델바르트는 스스로 들어간다. 정신병원은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공간이지만, 아델바르트에게는 그가 겪고 있

42) Werk, S. 163.

43)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나남 출판, 2003 참조.

는 고통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곳에서 받는 치료로 인해 그의 정신과 육체는 서서히 무너져 가지만, 아델바르트 자신에게 그 치료는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델바르트는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 자신의 기억이 서서히 사라져가기를 바란다. 충격요법은 물리적으로 그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치료가 끝난 후 그는 가볍게 한숨소리를 낸다. 그리고 그날 밤 사망한다.

다음날 새벽녘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을 때, 나는 그가 에나멜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완벽하게 차려입고는 침대에 누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dort habe ich ihn im Morgengrauen des folgenden Tages, als mein Gewissen mich plagte, auf seinem Bett liegen gefunden in Lackstiefeln und sozusagen voller Montur.⁴⁴⁾

그는 의식을 치르듯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3.3. 막스 아우라흐: 폐허가 된 도시 속의 공간

막스 아우라흐는 청소년기에 영국으로 이주해왔다. 그림을 공부한 그는 화가로서 영국 맨체스터에 살고 있다. 아우라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아뜰리에에서 그림을 그리며 보내는데, 그가 자신의 공간을 유지하는 방식은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다.

박물관은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이지만,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는 아니다. 박물관에 보관되는 것들은 기억할만한 것,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우라흐는 자신만의 박물관인 아뜰리에에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한다. 그 물건들은 모두 아우라흐에게 속한 것으로, 그가 창조해낸 그림들, 그 그림을 그리던 과정 속에서 생겨난 부산물들이다.

그는 작업실 안에 있는 물건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자기에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얼핏 지나가듯 말했다. 모든 것이 이전처럼, 그가 정리해놓은 그대로, 지금처럼 있어야 하며,

44) Werk, S. 171.

그림을 그릴 때 생기는 쓰레기와 끊임없이 내려앉으면서 그가 서서히 이해해가듯이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인 먼지들 외에는 아무것도 더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s sei für ihn stets von der größten Bedeutung gewesen, sagte Aurach beiläufig einmal, daß nichts an seinem Arbeitsplatz sich verändere, daß alles so bleibe, wie es vordem war, wie er es sich eingerichtet habe, wie es jetzt sei, und daß nichts hinzukomme als der Unrat, der anfallt bei der Verfertigung der Bilder, und der Staub, der sich unablässig herniedersenke und der ihm, wie er langsam begreifen lerne, so ziemlich das Liebste sei auf der Welt.⁴⁵⁾

또한 그가 화가로써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아우라흐가 아뜰리에를 꾸미는 방식과 흡사하다.

구경꾼에게는 그렇게 작업이 끝난 그림을 보면, 너털너털해진 종이 위를 여전히 유령처럼 어슬렁거리는 얼굴들이 긴 회색의 행렬로부터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고, 마지막으로 남은 그림은 그런 조상으로 부터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so hatte es für den Betrachter den Anschein, als sei es hervorgegangen aus einer langen Ahnenreihe grauer, eingeäschertes, in dem zerschundenen Papier nach wie vor herumgeisternder Gesichter.⁴⁶⁾

아우라흐가 자신의 공간을 꾸려나가는 방식과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모두 무언가를 보존하려는 행위이다. 그가 보존하려하는 것은 시간을 견뎌낸 것들이다.

그가 영국으로 이주한 후 지금까지 머물고 있는 맨체스터는 산업혁명 이후 선두를 달리는 공업기지로, 거대한 운하가 이 도시에 완성된 후에는 세계 최대의 내항을 지니게 되었다. 당시 수많은 해운 업체들이 해안가에 운집해 있었고, 거대한 공업도시에서 사용하고 가공하고 제작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맨체스터의 항구를 통해 유입됐다. 그로 인해 해운교통은 1930년에 정점에 달했지만, 그 뒤로는 하강곡선을 그리다가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결국

45) Werk, S. 238.

46) Werk, S. 239.

맨체스터엔 폐쇄된 공장과 기업들의 잔해가 남게 된다. 아우라흐는 청소년기 시절부터 맨체스터에 거주하며 이 도시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이 도시의 흥망성쇠를 목격했다.

노란빛의 회색 연기를 뿜어 대던 사각형과 원형의 굴뚝들과 셀 수 없이 많은 연통들은 그가 그때까지 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했다. 아우라흐가 말했다. 그때 맨체스터의 풍경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더 이상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살아야 할 곳에 도착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네. Es waren diese viereckigen und runden Schlote und diese ungezählten Kamine, aus denen ein gelbgrauer Rauch drang, die sich, so sagte Aurach, dem Ankömmling tiefer einprägten als alles, was er bis dahin gesehen hatte. Genau vermag ich es nicht mehr anzugeben, sagte Aurach, welche Gedanken der Anblick von Manchester damals in mir auslöste, aber ich glaube, daß ich das Gefühl hatte, angelangt zu sein am Ort meiner Bestimmung.⁴⁷⁾

부모님과 함께 독일을 떠날 수 없어서 혼자 영국으로 이주해 온 아우라흐는 대도시의 변화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찾는다. 도시의 변화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우라흐는 맨체스터가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을 구시대의 악습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 징조로 여긴다. 즉 자신의 가족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비극은 과거에 속한 것이고, 자신이 살게 될 도시의 변화는 과거의 악습들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과 같은 의미였다. 도시가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모해가는 모습은 그에게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다가온다.

지금은 너무나 적막하고 움직임이 없는 운하를 보면 믿기 어렵겠지만, 저녁의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는 도시를 다시 떠올려보면, 이차세계대전 후에도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화물선들이 드나드는 것을 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 화물선들은 운하 안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항구 가까운 곳에 이르면 주변 집들의 검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높이 솟아올랐지. 그리고 겨울날이면 갑자기 떠오른 안개로 인해 배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없었고, 그럴 때 배들은 소리 없이

47) Werk, S. 251.

창문 앞에 별안간 나타났다가 천천히 하얀 안개 속으로 다시 사라지곤 했다. 아우라흐가 말했다. 나에게는 어떤 이유에선지 깊은 전율을 느끼게 하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광경이었지.

Angesichts der Bewegungslosigkeit und Totenstille, die heute über dem Kanal liege, könne man es sich wohl kaum mehr vorstellen, sagte Aurach, als wir zurückblickten auf die in den Abendschatten versinkende Stadt, daß er selber hier in den Jahren nach dem letzten Krieg noch Frachter von überwältigenden Ausmaßen habe fahren sehen. Langsam glitten

sie auf ihrer Wasserstraße dahin, und sie glitten, wenn sie dem Hafen sich näherten, mitten hindurch durch die Häuser, deren schwarze Schieferdächer sie weit überragten. Und wenn sie im Winter, ohne daß man ihr Herannahen geahnt hätte, auf einmal auftauchten aus dem Nebel, lautlos sich vorbeibewegten und gleich darauf wieder verschwanden in der weißen Luft, so ist das für mich, sagte Aurach, jedesmal ein ganz und gar unfaßbares, aus irgendeinem Grund tief mich erschütterndes Schauspiel gewesen.⁴⁸⁾

그러나 분주했던 도시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점점 폐허가 되어간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기를 내뿜던 공장 위의 굴뚝들은 철거되거나 방치된 상태이다.

도시가 폐허가 되어가면서 아우라흐의 내면에도 변화가 생긴다. 맨체스터가 겪은 급격한 변화는 그의 내면에 큰 동요를 불러온다. 시간이 흐를수록 맨체스터는 이전처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맨체스터의 황망한 풍경과 정취는 나이가 들어가며 고통으로 지친 아우라흐를 더욱 무력하게 만든다. 시종일관 분주하고 활발한 기운을 내뿜던 도시는 이제 일용직 노동자와 떠돌이를 배출하는 도시가 됐다. 아우라흐의 위와 같은 언급들은 그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맨체스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우라흐는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사이의 한 지점에 놓여있다. 화가로써 성공한 현재의 삶은 과거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다. 성공한 화가라는 직함은, 그가 노력해서 이룩해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안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기억

48) Werk, S. 246.

앞에서 아우라흐는 여전히 끔찍한 기억을 잊지 못한 채 노인이 된 사람일 뿐이다. 또한 폐허가 된 맨체스터는 과거의 맨체스터를 그리워하게 한다.

아우라흐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현재의 상황에 저항한다.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창조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그 공간을 꾸미며 그곳에 칩거한다. 그의 아뜰리에에는 바깥의 세상과는 무관한 세상으로 과거의 물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의 물건들은 아우라흐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그가 직접 만들어낸 그의 작품들이며,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들이다. 그의 아뜰리에에는 넓고 지저분하지만 폐허가 된 도시와는 다른 공간이다.

아우라흐가 아뜰리에와 자신의 집 외에 시간을 보내는 곳은 아프리카인들이 운영하는 간이식당이다. 아우라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아뜰리에에서 보냈지만, 아침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저녁에 아뜰리에에서 나온 뒤에는 공원 근처에 있는 간이식당에서 종종 시간을 보낸다. ‘와디 할파’라는 이름의 그 간이 식당은 무너질 것 같은 텅 빈 건물의 지하에 있다.

이 간이 식당의 요리사는 팔십에 가까운 노인으로서 옛 마사이족의 족장이었다. 그는 전쟁 후에 케냐 남부 지방에서 도보로 영국 북부까지 오게 되었다. 이 식당의 웨이터들은 모두 족장의 아들로, 모두 비슷한 용모였기에 구별하기 쉽지 않았다. 간이 식당은 맨체스터가 도시의 순기능을 잃고 역기능을 하게 되면서 생긴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공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주로 여러 철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화물차 운전수나 청소부들이었으며, 방랑자들도 더러 섞여 있었다. 이들은 주로 도시의 산물이다. 철거회사의 노동자나 화물차 운전수는 도시화가 만들어낸 직업이다. 도시들을 떠돌며 일하는 사람들은 이 간이식당에서 잠시 쉴 수 있다.

아우라흐는 점점 더 자신의 아뜰리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어려워한다.

당시의 상상했던 것과 일치하게 나는 오늘날까지 맨체스터에 머물고 있네. 아우라흐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여기 온 뒤로 벌써 이십 이년이 흘렀지. 그가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을 떠난다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맨체스터는 결정적으로 나를 움켜쥐고 있어.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허락되지도 않아. 일 년에 한두 번 자료조사차 어쩔 수 없이 런던에 가는 일조차 부담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져.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것,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들, 기차에 앉아 있는 것, 창

밖을 스쳐지나가는, 내게는 여전히 낯설기만 한 풍경들, 함께 앉아 있는 여행객들의 시선,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고통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타지에 가본 적이 거의 없어. 맨체스터에서만 살았지. 심지어 이 도시에서도 나는 몇 주일이 흐르도록 집과 작업실을 벗어나지 않는 일이 많아.

Meiner damaligen Vorstellung entsprechend, bin ich bis auf den

heutigen Tag in Manchester geblieben, setzte Aurach seine Geschichte fort. Zweiundzwanzig Jahre sind es nun, sagte er, daß ich angekommen bin, und mit jedem Tag, der vergeht, wird es mir unmöglicher, an eine Ortsveränderung auch nur zu denken. Manchester hat endgültig Besitz ergriffen von mir. Ich kann und will und darf nicht mehr fort. Selbst die ein-, zweimal im Jahr unumgänglichen Fahrten zu Studienzwecken nach London belasten und beunruhigen mich. Das Warten auf den Bahnhöfen, die Lausprecherdurchsagen, mir nach wie vor vollkommen fremdes Land, die Blicke der Mitreisenden, all das ist mir eine einzige Pein. Darum bin ich auch in meinem Leben so gut wie nirgends gewesen, außer eben in Manchester, und selbst hier komme ich oft wochenlang nicht aus dem Haus beziehungsweise aus meiner Werkstatt.⁴⁹⁾

바깥 공간, 즉 현재의 맨체스터는 변화 도중에 폐허가 된 도시이다. 폐허가 된 도시는 아우라흐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아우라흐는 폐허가 된 도시 안에 자신이 만든 공간을 떠나지 않는다. 그는 피로감과 익숙함으로 인해 자신을 붙잡고 있는 도시를 도피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맨체스터의 황망한 풍경은 결국엔 그가 과거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시간을 잊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시의 황폐한 모습은 과거 파괴의 시간을 다시금 떠오르게 한다. 반복되는 상황에 무력해진 아우라흐는 그의 방식으로 현재의 상황을 거부한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장소에 칩거하는 방식을 택한다.

49) Werk, S. 251.

IV. 결론

『이민자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기억은 주인공들에게 복합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기억의 무의지적 특성으로 인해 인물들은 기억이 불러오는 것들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등장인물들의 기억과, 기억이 유발하는 감정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반영되어 있다. 첫 번째 단편의 주인공인 헨리 쉐윈 박사의 경우 따로 마련된 별채에 칩거하고, 두 번째 단편의 등장인물인 암브로스 아델바르트는 정신병원으로 향했으며, 막스 아우라흐는 그의 아플리에나 아프리카인들이 운영하는 간이식당으로 몸을 숨긴다. 마지막 단편에서는 산업시대의 희생물이 되어버린 영국의 맨체스터가 전면부에 부각된다. 마지막 단편의 주인공인 막스 아우라흐의 삶은 맨체스터와 희망성쇠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인공들의 기억은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부각시킨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은 상대적으로 불행한 현재의 상황을 더 뚜렷이 인식하게 하고, 과거의 끔찍한 기억은 비교적 나아진 현재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지 못하게 만든다. 과거의 것들은 끊임없이 현재로 유입되어 등장인물들을 괴롭힌다.

그들이 창조한 공간은 각각의 인물들의 내면의 반영이다.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간을 만들고, 그 장소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들의 공간은 또한 저항과 거부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민자로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그들은 고유의 장소를 만들고, 그 곳에서 해방감을 얻고자 한다. 이민자들은 떠나온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사이에서 부유하면서 두 공간들이 자신을 압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그 시도로써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만든 장소에 칩거하고 그 공간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한다.

주인공 중 몇몇은 공간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버티는데, 혹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는 순간,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남아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 뿐 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민자들』의 네 개의 단편에는 등장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추적하는 사람들은 작가의 분신과 같은 사람들

이다. 추적자들은 추적의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의 삶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이는 작가인 제발트가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이민 간 이유와 중첩된다.

『이민자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그 기억은 공간 창조에 반영된다. 그들은 한 공간에 은둔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거부한다.

이러한 이유로 작품 『이민자들』의 등장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억과 공간의 특성, 즉 공간과 기억의 가변적 성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1차문헌

Sebald, W. G.: Die Ausgewanderten, vier lange Erzählungen,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main, 2002.

2. 2차문헌

구연정: 은유로서의 현기증과 제발트의 기억 시학, 카프카 연구 제 25집, 2011, 91-109쪽.

국토연구원: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2001.

김응준: 인류문명의 몰락에 관한 보고서, 뷁히너와 현대문학 제 32집, 2009, 94-120쪽.

안미현: W.G. 제발트의 『아우스터리츠』에 나타난 근대 도시의 표상, 한국독일어문학회, 제 50집, 2010, 47-70쪽.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2.

최윤영: 풍크툼, 기억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제발트의 『아우스터리츠』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 연구소, 제 19집, 2010, 103-129쪽.

Assmann, Aleida: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0.

Benjamin, Walter: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Bhabha, Homi: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02.

Foucault, Michel: 광기의 역사, 나남출판, 2003.

Günzel, Stephan: 토폴로지, 에코리브르, 2010.

Harvey, David: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4.

Klebes, Martin: Remembering failure, Philosophy and the form of the novel, Winfried Georg Sebald, Ernst Wilhelm Haendler, Jacques Roubaud, France, Germany, Northwestern University, 박사학위논문, 2003.

Lefebvre, Henri: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Nora, Pierre: 기억의 장소1, 나남출판, 2010.

Schroer, Markus: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Zusammenfassung

Erinnerungen und Räume in „Die Ausgewanderten“

von W.G. Sebald

Choi, Soo Yeon

Dep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Diese Arbeit stellt Betrachtungen über die Erinnerungen und Räume der Hauptfiguren in „Die Ausgewanderten“ von W.G. Sebald an. Der Roman besteht aus vier Erzählungen. W.G. Sebald ist im Jahr 1944 in Wertach im Allgäu geboren. Nach dem Studium in der Schweiz entschied er sich 1965, nach England auszuwandern. Dort hat er bis 2001 gelebt und auch Germanistik gelehrt.

In seiner Jugend hatte Sebald von der Geschichte des Holocaust erfahren. Später sagte er aus, dass er die unerträgliche Schwere der späten Geburt gefühlt habe.

In der ersten Hälfte der 40er-Jahre wanderten viele Juden auch in europäische Länder aus. Zum einen hatten sie keine andere Möglichkeit, da die Verfolgung durch die Nationalsozialisten lebensbedrohlich geworden war. Zum anderen entschieden sie sich zur Auswanderung, um einen Arbeitsplatz zu finden. Nach der Niederlage Deutschlands kamen die Ausgewanderten nicht nach Deutschland zurück.

Die vier Hauptprotagonisten des Romanes sind titelgebend für das Werk. Sie durchleben eine schwere Zeit in ihrem jeweiligen fremden Land. Die Schwierigkeiten der Personen beziehen sich auf ihre Erinnerungen, die sie vorher in ihrer Heimat erfahren haben: Es sind sowohl qualvolle als auch angenehme Erinnerungen, die sie nicht mehr loslassen.

Die melancholische Atmosphäre des Werkes macht deutlich, wie sehr der Autor die Tragödie dieser Menschen mitgeföhlt hat.

Für das Verständnis der Qualen der Ausgewanderten ist es erforderlich, zunächst Kenntnisse über Merkmale, die die Erinnerungen und Räume der betreffenden Personen beschreiben, zu gewinnen.

Denn in dem Werk „Die Ausgewanderten“ leiden die vier Protagonisten an ihren Erinnerungen und verbergen sich in ihren eigenen vier Wänden, um ihre Qualen zu überstehen. In diesem Sinne sind die Räume Rückzugsmöglichkeiten der Figuren, um ihr elendes Leben zu ändern. Sie versuchen an diesen neu geschaffenen Orten, Widerstand zu leisten. Außerdem spiegeln die Räume innere Leiden und Wünsche der Figuren wider und bieten einen Platz, an dem sie sich regenerieren können.

Die Erinnerung ist Ergebnis der Vergangenheit. Jedoch erinnert man sich im Präsens, und die Erinnerung verbindet die Protagonisten mit der Vergangenheit.

Den vier Protagonisten steht jeweils ein Mensch zur Seite, mit dem man kurz zuvor Freundschaft geschlossen hat. Jeder dieser Freunde zeigt sich über den Tod seines Bekannten verwundert und versucht, dessen Leben und tragischen Tod zu verstehen. Deshalb forschen sie in den Erinnerungen der Protagonisten und untersuchen die Räume, welche die vier Personen umgeben haben.